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4106.39 (+33.15)	▼ 코스닥 884.27 (-4.08)		
▼ 금리 (미국 9년) 2.831 (-0.034)	▲ 환율 1463.75 (+12.35)		

삼성·TSMC, 냉각으로 승부 건다

AI 반도체 냉각기술 선점전
패키지 단계 열제어 혁신에
구조·신소재로 해법 모색



삼성전자 'HBM3E'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전력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냉각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패키징 단계에서의 열 제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AI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 내부 열 분산 구조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공랭·수랭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TSMC는 실리콘 인터포저에 열전달 경로를 내장하는 고집적 패키징 구조를 선보였으며, 삼성전자는 3D 적층형 HBM

패키지의 열저항을 낮추는 신소재 및 구조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패키징 열관리 역량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다. HBM3E 12단(12-Hi) 제품에 열전달 효율을 높이는 '열압착 비전도성필름(TC NCF)' 공정을 업계 최초로 적용해 12단 적층 구조에서도 열 성능을 확보했으며, 고성능 메모리의 발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소재·구조 연구를 병행하며 차세대 HBM4 대응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올해 5월에는 독일 산업용 냉각·공조 전문기업 플렉트그룹을 약 15억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인수해 반도체 생산라인과 AI 데이터센터 등 고발열 인프라의 냉각 역량을 강화했다.

TSMC는 관련 기술을 학회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IEEE ECTC에서는 인터포저 내부에 냉각 채널을 내장한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도 고집적 패키징의 열관리 혁신을 주제로 유체 기반 냉각 기술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반도체의 소비전력이 수백 와트 단위로 늘며 새로운 방식의 냉각 접근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HBM4E 이후 공정에서는 메모리와 로직 칩이 밀착 적층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패키징 단계에서의 냉각 효율이 성능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최근 기술 경쟁은 단순한 특허 확보 단계를 넘어 특허 방어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삼성과 TSMC 모두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징 기술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열관리 구조가 표준화될 경우 특허권이 산업 전반의 협상 지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과거 노광(EUV)과 실리콘 관통전극(TSV) 분야에서 이어졌던 특허 경쟁이 향후 냉각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까지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방어형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까지 메모리 설계 및 패키징 분야에서 넷리스트, KIP 등 다수의 분쟁을 겪었으며, 이달 초에는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침해로 1억9000만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 강 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 강 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 강 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강 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美 '셋다운' 종료 임박... 글로벌 금융시장 '안도'

미 상원, 임시 예산안 가결
트럼프 서명 시 즉시 효력

미국 상원이 미 연방정부의 '셋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셋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됐던 셋다운이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확산했던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단을 위한 '절차 표결'이 가결된 지 하루 만으로, 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52명에 더해 미 민주당 소속 중도와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셋다운 합의안을 수용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수



코스피가 전 거래일(4073.24)보다 33.15포인트(0.81%) 상승한 4106.39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1.4원)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용할 것'이라며 "충분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곧 미국을 빠르게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역대 최장' 셋다운...불확실성 해소 수순

미 하원은 이르면 오는 12일(현지시간)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상원에서 마련한 임시예산안을 하원이 그대로 표결할 경우 빠른 종결이 예상되는데, 공화당이 하원 내에서 과반을 점유 중인 만

큼 이른 시일 내에 표결을 마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0월 1일 이후 41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셋다운도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셋다운이 종료되면 '데이터 블랙아웃(셋다운으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중단되는 것)' 현상도 해소된다. 지난달 초 셋다운 이후 중단됐던 CPI(소비자물가지수)·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의 발표가 재개되면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던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다.

셋다운으로 공식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 10월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됐다는 민간 보고서가 다수 공개됐다. 고용시장이 위축될 경우 미 연준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셋다운 종료 이후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韓 올해 0.9%, 내년 1.8% 성장”

KDI '경제전망 보고서'
기존 0.8→0.9% 상향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예측치인 0.8%에서 0.1%포인트(p) 올

려 잡았다.

KDI는 게임·탄핵 후폭풍으로 성장률이 지난 상반기(0.3%)에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1% 선을 밀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라는 진단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하니 발작... 정권 몰락 신호탄” /사진 뉴시스

▲박지원 “윤석열 영치금 연 단위로 25억...뇌물 수사해야”

▲박형준 “국가 시스템 전체가 李 방탄 전략...민심의 배 뒤집어질 수 있어”

▲조국 “국민이 원하는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멈추지 않을 것”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 “맨 앞에서 외풍 맞으면서 독립성 지켜”

▲오세훈 “김민석, 종묘 두고 국민 선동...총리면 갈등 조정해야”

“K-방산, 네덜란드·스페인 등과 협력… EU 물량 따내야”

국방비 늘리는 EU

2030년까지 총 1355조 확대 목표
‘유럽산 인정’시 조달시장 진입하고
수명주기 정비 네트워크 기반 확대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방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유럽산 인정 임계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법으로는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의 핀셋형 현지화 협력이 거론된다.

1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FTI컨설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약 1355조원) 규모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지난 5월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AFE는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약 254조원)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 공동조달 및 생산능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SAFE 자금



현대로템 K2 전차.

/현대로템

으로 조달한 장비의 최소 65%는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도록 규정해 역외 업체의 부품 비중이 35%를 넘기기 어렵게 설계됐다.

한국은 EU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EU-한국 보안·국방 파트너십’에 따라 영국·캐나다·일본·노

르웨이 등과 함께 SAFE 공동조달 참여가 가능한 파트너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역외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지속 접근하려면 유럽 내 생산·정비·체계통합 역량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연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표 공

급국이 한국이라고 분석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6.5%로, 미국(64%)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유럽산 인정(현지화 임계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조달시장 진입은 물론 수명주기 정비(MRO) 네트워크와 후속지원 체계까지 연결되며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프랑스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양산·수출하는 국가인 반면 네덜란드는 전투체계·센서 등 특정 첨단 분야에 특화돼 있어 대량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방산협력 언급과 한·네 방산 세미나 개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탈리아 역시 유력한 협력 상대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

서 열린 한-이탈리아 방산포럼에선 합정 전투체계·센서·데이터링크 등 ‘함의 두뇌와 신경계’에 대한 체계통합 협력이 논의됐다.

스페인은 재래식 무기 부품 수급과 훈련체계 운용 기반이 탄탄하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도 각기 강점이 달라 국가별로 핀셋형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유럽은 방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성비·납기 경쟁력을 유지하되, 상대 국가별로 조정된 분업·현지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기술이전보다는 핵심 기술 보호를 전제로 협력 범위를 세분화하고, 패키지 딜에도 기술이전 수준·현지생산 비율·재이전(재판매) 제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무기 현대화 수요 급증… K-방산, 중동시장서 ‘존재감’

한화에어로, 4000억 수주 4분기 반영
“연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질 것”

LIG넥스원, 3분기 천궁 수출 확대
중동 3개국 천궁 수출·수익 상승 예고

중동시장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정과 군비 경쟁 확산으로 무기 현대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실적을 쌓으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국방비 확대와 장비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방산 수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선 중동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과 증가율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2033년까지 연평균 약 5.1%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시장 확대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000억원 규모의 중동 유도무기 수주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연말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IG넥스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향 천궁 수출이 2분기 730억원에서 3분기 83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6~2028년에는 중동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천궁 수출이 전체 수출과 수익 비중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각국은 최근 미국·유럽연합(EU)의 수출 제한 강화 속에 방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개발 비전인 ‘비전2030’을 통해 방산 국산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주도하는 군수산업공사(SAMI)가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현지 생산과

인 구축, 기술이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2019년 설립한 에지그룹(EDGE Group)을 중심으로 25개 민·군 방산 기업을 통합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기술을 결합한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산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이 중동 각국이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 및 제조 기반의 한계로 인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방산 수출국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은 다른 권역과 달리 역사, 종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에 맞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반 제조·수출 기업에 비해 여전히 지역별 정치·경제·사회·종교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와의 공조 체계 강화도 강조됐다.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산 특사로 파견된 만큼 정부 일정과 연계해 방산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며 윈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정치 일정이나 정권 교체도 수출 변수로 꼽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기 거래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뿐 아니라 구매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폴란드 사례처럼 총선 이후 정책 기조 변화나 계약 재검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1면 ‘美 섰다운 종료 임박…’서 계속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소비회복 기대감에 증권시장 자금 유입 국내 환율 안정될 듯

◆ 원·달러 환율도 ‘청신호’

섰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선 위험자산에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데이터 블랙아웃’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달러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시장에 풀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섰다운 종료 및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섰다운 종료에 따른 환율 안정이 예상된다. 이번 섰다운이 장기간 지속되며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일 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67.5원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며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간 조정 이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선 1380원대까지 하락(강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경제 지표 등 눈에 띄는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섰다운 종료와 증시 호조 등 심리적 안정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섰다운 협상으로, 섰다운 협상이 타결되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며 달러화 지수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자금사정 악화땐 외식비·의류비 줄일 것”

데이터처, 2025 사회조사 결과
가구소득 증가 21.5%, 감소 19%
17.7% 부채 늘어나고 13% 줄어

국내 가구주들은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경우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의류비, 식료품비, 문화·여가비가 그 뒤를 이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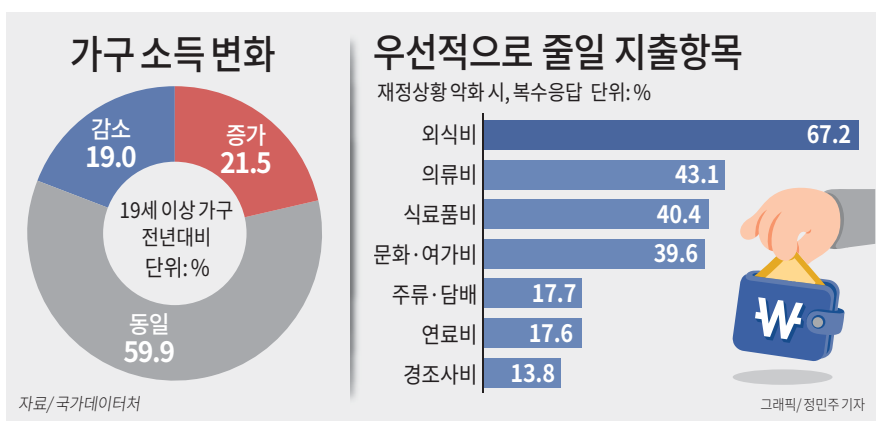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5%로 나타났다. 또 감소했다고 답한 비중은 19.0%, 동일하다는 응답은 59.5%였다.

가구 부채가 전년대비 늘었다고 답한 비중은 17.7%, 감소는 13.0%, 동일은 69.3%로 집계됐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3%p 증가한 27.0%로, ‘나빠질 것’(19.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비관 응답은 1.8%포인트(p) 줄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재정 상태를 낙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식비와 여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24.6%로, 2년 전(21.2%)보다 3.4%p 상승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복수응답)으로는 외



식비가 67.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순이었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수입(40.0%)이 1순위였다. 이어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근무환경(10.0%)이 뒤를 이

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과 안정성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28.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순이었다. 자영업(창업), 벤처, 중소기업, 해외취업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05~2026(예상치) 법인세 최고세율 정리)

기간	과세표준	세율	정부
2005~2007	1억 초과	25	노무현
2008	2억 초과	25	노무현~이명박
2009~2011	2억 초과	22	이명박
2012~2014	200억 초과	22	이명박~박근혜
2015~2017	3000억 초과	22	박근혜
2018~2022	3000억 초과	25	문재인
2023~2025	3000억 초과	24	윤석열
2026	3000억 초과	25(예상)	이재명

단위: 원·%

‘법인세 인상’ 도마 위 재정안정 vs 기업부담

(정부·여당)

(야당)

2025 세제개편안

국회 예결위 조세소위원회 앞뒤
정부, 법인세율 2022년 수준 예고
“인상 필요성·한계 등 검토 필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차려지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제수입 기반이 악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

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통계연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부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제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견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빚투·영끌’ 등 부채 급증.. 부실 우려 목소리 커져

주식·부동산 시장 중심 머니무브
은행, 일주일새 신용대출잔액 1조 ↑

“와이프의 불면 소리가 갈수록 커집니다.우리만 ‘벼락거지’ 되는 것 아니냐고. 뭐라도 빨리 사라지고요. 불안합니다 불장.”(직장인 김모씨·43)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기대감 속에 코스피 지수가 11일 4100선까지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 대열에 동참하려는 개미들 사이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사는 부동산 ‘영끌’ 수요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빚투·영끌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은행 가계신용대출 급증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일까지 증가 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은행 마통만이 아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7일 26조2165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0조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잔고액은 지난 5일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빚투족’이 급증한 것은 코스피 영향이 크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흔들리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대를 넘어섰으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인다.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경고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주택대출 세액공제, 공공금융기관 주택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차입을 통한 주택구매가 늘었지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2000년대 들어 부채 상황(디레버리징)이 이뤄지면서 가계소비는 장기간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내년 코스피 상단 ‘4500~7500’ 제시

낙관론-신중론 맞서며 상단 편차 커져

올해 코스피가 조정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맞서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7500포인트로 제시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놴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현재는 1984년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시기

와 유사한 국면”이라며 “이번 강세장은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닌 40년 만의 장기 상승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KB증권은 반도체 업종의 공급 부족에 따른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 또한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4500포인트로 제시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최고치를 4600포인트로 제시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5000포인트를 전망했다.

증권사별 전망치 편차가 벌어지면서 투자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증권사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내년, 수출둔화·내수회복 경향 보일 것”

》1면 ‘韓 올해 0.9%’서 계속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수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미국발 상호관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GDP 증가율의 관건은 1% 선이었다. 지난달 하순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달 7일(현지시간) 한국 전망치를 종전 대비 0.1%p 올린 1.0%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보고서에서 1.0%를 예측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1.8% 전망치를 제시했다. 종전의 1.6%에서 0.2%p 상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서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1.3%)보다 높은 증가폭(1.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통상협정 세 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60년 장인정신에 혁신 담아... ‘신라면 신화’ 세계로 간다

K-푸드 세대교체



농심이 창업주故 신춘호 회장에서 신동원 회장, 그리고 장남 신상열 전 무로 이어지는 ‘3세대 경영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 60년을 넘어선 농심은 이제 ‘신라면의 시대’를 넘어 글로벌 종합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미국 제2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전무).

스마트팜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약 4000㎡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스타트업 외에도 향후 농심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M&A, 스타트업 투자 및 전략적 제휴도 고려하고 있다.

농심의 글로벌 시장 확대는 ‘콘텐츠와 음식의 결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등장한 농심 제품이 전 세계 팬덤의 주목을 받아, 이를 기민하게 사업 기회로 연결했다. 농심은 케데헌 캐릭터를 입힌 신라면컵·새우깡 한정판을 출시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에서 대규모 체험형 이벤트를 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케데헌 협업 제품을 본격 판매하면서 증권가 역시 ‘농심의 글로벌 반등’을 전망한다.

1965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출발한 농심의 뿌리는 ‘장인정신’이었다. 신춘호 선대 회장은 스스로를 ‘라면장이’라 부르며 신라면, 새우깡, 너구리, 짜파게티 등 수많은 브랜드를 직접 이름 짓고 한국 식품의 상징으로 키워냈다. 창의성과 완성도에 대한 집착은 ‘작명의 달인’

이라는 별명을 낳았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장남 신동원 회장은 ‘개척자’의 뒤를 잇는 ‘확장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1979년 입사한 그는 1997년 대표이사, 2000년 부회장을 거쳐 2021년 그룹 회장에 올랐다.

신 회장은 국내 점유율에 안주하지 않

고 해외 생산기지를 세워 농심의 글로벌화를 본격화했다. 중국 상해공장(1996), 미국 LA공장(2005), 농심재팬(2002), 농심호주(2014), 농심캐나다(2020) 등이 그의 작품이다. 현재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40%, 신라면의 누적 판매량은 400억 개 안팎에 달한다..

신 회장은 “글로벌 라면 기업 5위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하자”는 목표를 내세우며, 2030년까지 매출 7조3000억 원, 해외 매출 비중 61% 달성을 선언했다.

농심은 ‘신라면 톱바’에 이어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내놓으며 한국의 매운맛을 세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라면 톱바는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 새우, 베이컨 등을 넣어 만드는 인기 모디슈머 레시피 ‘신라면 투움바’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이다.

지난해 9월 용기면으로 처음 선보인 후 봉지면까지 출시됐다. 현재까지 글로벌 판매량은 6000만 봉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라면 김치볶음면은 신라면과 신라면 톱바를 잇는 농심의 글로벌 전략 제품으로 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업간거래(B2B) 식품 박람회인 ‘아누가(ANUGA)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오는 24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 전 세계 60~70개국 수출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글로벌 행보는 3세 경영인 신상열 전무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93년생인 신 전무는 미국 유학파로 2019년 입사 후 경영기획실 부장, 구매실장을 거쳐 현재 미래사업실장으로 그룹의 새 성장축을 총괄하고 있다.

농심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사업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사업형 인재와 창의적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사내 스타트업 ‘엔스타트(N-Start)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엔스타트는 신 전무가 지휘하는 미래사업실 내 성장전략팀 관할이다. 직원 누구나 농심이 보유한 내부 역량을 활용해 신사업을 제안하고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내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농심이 신사업으로 추진중인 건기식, 스마트팜 사업도 사내 스타트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라면 이후’ 글로벌 확장 전략

사내 스타트업 통한 신사업 육성
스마트팜·건기식 등 신시장 개척
콘텐츠 결합한 K-푸드 글로벌화
2030년 세계 1위 비전 본격 추진

키움증권은 “4분기부터 케데헌 모멘텀으로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며 농심의 해외 실적 개선을 점쳤고, 다올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심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인스턴트 라면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21.5%로 일본 도요스이산(42.8%)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삼양식품(8.1%)과는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월마트 내 메인 매대 입점을 기존 대비 5배 확대했고, 코스트코 서부 일부 지역에 신라면 톱바를 입점시키며 유통망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력 강화도 병행한다. 지난해 미국 제2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부산 독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하반기 완공되면 연간 5억 개 라면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농심의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농심은 내부적으로 창업 세대의 장인정신과 3세대의 혁신을 결합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신라면 이후’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창업 60년을 넘긴 지금, 농심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식품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분양공고 -단독주택용지(일반·점포겸용)-

1. 분양대상 토지

사업지구	구 분	필지수	토지면적(㎡)	분양금액(억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구미 하이테크밸리	단독주택(일반)	1	234	1.3	분양금액 10% 이상	수의
	단독주택(점포겸용)	3	240~291	1.6~2.0		
구미 확장단지	단독주택(일반)	31	307~480	2.3~3.7		
	단독주택(점포겸용)	1	283	2.5		

- 토지위치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라고 함)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kwater.or.kr/land>) 분양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제한 등은 분양공고문 내용과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내역, 자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일정

구분	일정	장소
분양공고	‘ 25. 11. 12.(수) ~ 12. 31.(수)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s://www.kwater.or.kr/land)
매입신청	‘ 25. 11. 12.(수) ~ 12. 31.(수) (평일 10:00 ~ 17:00)	직접 방문 신청(계약)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 (경상북도 구미시 첨단기업로 5)
분양계약 체결	매입신청접수일(추첨의 경우 분양계약대상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평일 10:00 ~ 17:00)	

3. 분양신청 자격: 일반 실수요자(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단, K-water 임직원 본인 및 임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4. 대금납부: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택1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기납부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80%)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10%)
분할납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납부 (10%)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내 3회 균등분할납부(매 6개월마다)	

※ 구미확장단지는 분양활성화 촉진책으로 대금납부시기 1년 거치 및 무이자할부 시행

5. 유의사항

- 신문공고문은 분양공고문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분양방법, 유의사항, 처분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kwater.or.kr/land>)의 분양공고문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K-water 구미사업단 판매보상부 ☎ (054)479-4216~18
-------	--

2025. 11. 12.

 구미사업단장



미국 타임스퀘어 디지털 옥외광고에서 농심 신라면과 _케이팝 데몬 헌터스_ 협업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농심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대정부투쟁 나선 野…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대검찰청·법무부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현장 규탄대회
나경원 “진실의 문에 대못 박아”
송언석 “누가, 언제, 왜” 외압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사퇴 촉구도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단체행동으로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검찰청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재명 정권이 국가 해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해체 프로젝트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재판 무엇인가. 바로 대장동 재판의 1심 판결문은 이재명 유죄 판결문”이라며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39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이 진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중합청사 앞에서 법무부 현장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은 항소 포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결국 더 이상 대장동 공범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814억원을 그대로 안겨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일부 무죄가 있는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이고, 항소 논리이고 항소 제도였다”면서 “그런데도 그것을 헌신짝같이 버렸

다. 왜인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하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과천 법무부를 찾아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

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을 파괴 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자백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의 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시위 소란’이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그란 총 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시위소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경제 회복 집중… 물가안정·주식·내란극복 살피

李 대통령, 제49회 국무회의 주재
물가 담합 현황, 세제혜택 등 점검
‘헌법존중정부혁신 TF’ 논의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잠시 숨을 돌린 뒤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식품 물가 안정을 당부했으며,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2·3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



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강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

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하냐”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짚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12·3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동의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

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제,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국정동력을 저하해서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대통령실, 내달 중순쯤 청와대 순차 이전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시대’
보안 문제에 관저 이전은 ‘아직’

대통령실이 12월 중순쯤 용산의 대통령집무실 등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개막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청와대 연내 이전’은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내달 20일까지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8~14일 설도 나왔으나, 이보다는 늦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청와대 조직과 기자실(춘추관)까지 있는 상황이라, ‘이사’ 작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여민관(업무동)을 비롯해 청와대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보안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3년 넘게 ‘집을 비운’ 상태다 보니, 건물이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한다. 또 개방을 하면서 시설물이 파괴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노후화된 곳으로 꼽히는 여민관은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 정도로만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근 풍경도 변했다. 2022년 개방 이후 춘추관 앞에 넓게 깔렸던 보도블록도 사라졌고, 청와대를 둘러싼 외벽에 걸려 있던 그림들도 사라졌다. 해당 그림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청와대 개방 이후 걸렸다. 청와대 인근 도로에 있던 초소들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 앞길에는 곳곳에 경찰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시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연 말까지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와대 개방과 함께 관저도 개방했던 만큼 보안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기존 관저 대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서예진 기자

“국내 OTT 육성 위해 IP확보 정책 필요”

최형두·박정하 野 간사 국회 토론회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산업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OTT 허브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 정책 방향을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렸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와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네타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은 “글로벌 OTT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OTT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조원

의 기금을 만들고 전략위원회라든가 민간이 매칭되고 펀드가 확산되면 IP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새 마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여당 간사)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며 “문체위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모네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OTT 생태계를 튼튼히 갖추고 국제적인 IP 비즈니스 토대까지 갖춰야 IP주권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의 문화적 파급력 때문에 글로벌 OTT 파워에 의존하는 순간 IP는 넘어가는 것”이라며 IP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주요 은행들이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뉴시스

불장 속 예금사수 총력 은행, 금리인상 방어전

불장 여파에 증시로 자금 쏠려
5대 은행 예금 금리 0.25%p ↑
케이뱅크 ‘코드K’ 연 2.75%
신한은행 최고 연 20% 특판도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로 연말 연초에 예·적금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 금리는(12개월만기) 기본금리 연 2.05~2.75%,로 집계됐다.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2.46~2.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25%포인트(p) 올랐다.

5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른 이유는 우선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 금리의 기본금리인 은행채(무보증 AAA) 금리는 ▲9월 1일 2.515% ▲10월 1일 2.587% ▲11월 3일 2.715%로 상승했다.

연말 연초에 예금 만기가 몰려 있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컸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분기 만기 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크다”며 “수신 경쟁이 심화하면서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연말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으로 연 2.75%의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코드K 정기예금 1년만기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5%에서 연 2.55%로 올린 바 있다. 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과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예금은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상품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판매했다. 매주 최대 10만원씩 8주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게임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것이 특징이다. 총 30만화 한도였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게임 성적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IBK 랜덤 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은 100일로, 최고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총 적립한도는 500만원이다.

이 밖에 전북은행의 12개월 만기 ‘JB슈퍼씨드 적금’의 최고금리는 13%, 하나은행의 ‘오늘부터, 하나 적금’은 최고 7.7%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 적금’도 최고금리가 연 7%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불장 여파에 자금 이탈 속도가 더 빨라져 고민이 크다”며 “요구불예금과 같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다양한 특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금융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확대적용

그룹 전 계열사 공동 활용

우리금융그룹은 AX(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혁신을 단행했다. 이번에 구축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핵심전략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기술 기반이다. ‘BaaS서비스형 बैं킹’과 ‘우리WON지갑

(우리WON뱅크 디지털 지갑)’ 등 외부 제휴를 확대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 중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의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다. ISMS-P와 ISO/IEC 27001 등 국내외 핵심 보안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감독기관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개발·배포(CI/CD) 체계를 도입했다.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서비스 품질 검증과 보안 심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올댓’ 접는 신한카드… 수익성 중심 체질개선

신한카드, 커머스 전략 선회
‘누구나 이용’서 ‘회원 중심’
오픈몰 접고 자체 앱 쇼핑 강화

신한카드가 자체 쇼핑몰인 ‘올댓’ 서비스 운영을 4년 만에 종료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 효율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자사 오픈 개방형 쇼핑몰인 ‘올댓’ 플랫폼 서비스를 이달부로 종료한다. 이후부터는 신한솔(SOL) 페이애플리케이션 내 쇼핑 부문을 따로 개설해 ‘인앱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댓은 신한카드가 지난 2022년 자사 쇼핑사이트인 ‘올댓쇼핑’을 리뉴얼한 오픈형 쇼핑 플랫폼이다. 가구, 가전, 이사 등 생활용품과 더불어 웨딩용품, 여행 패키지, 골프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쇼핑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 올댓 서비스는 카드사 쇼핑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오픈형 개방쇼핑몰 형태로 운영돼 왔다. 신한카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



신한카드 ‘올댓 앱’ 종료 관련 안내 메시지.

한카드 외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시중은행 계좌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그런 올댓 서비스가 4년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독립형 오픈 쇼핑몰에서 신한카드 금융 앱에 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인앱몰’ 형태로 전환된다. 누구나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신한카드 발급 회원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종료가 비용 효율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신한카드 올댓 플랫폼은 그간

“대출 막혀도 산다”… 규제 비웃는 수도권 분양시장

반포 래미안 특공 86대 1 경쟁률
분당 26억·광명 15억 완판 행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들쭉이면서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86대 1로 집계됐다. 27세대 모집에 총 2만 3861명이 접수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워낙 대단지다보니 일반분양물량도 506세대에 달했다. 대출규제로 2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가능한 청약이지만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9825명, 869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최고 가격으로 기존 최고가인 강남구 ‘청담르엘’(7209만원)보다 1275만원이나 높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 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경기도 분당에서도 국민평형 26억원대의 최고가에 특별공급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신축 현장.

/안상미 기자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로 3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분당타이에르원’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16대 1로 집계됐다. 55세대 모집에 900명이 접수했다.

더샵분당타이에르원은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단지다. 총 873가구로 들어서며, 이 가운데 102가구(전용면적 66~8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66㎡ 19억7400만원, 74㎡ 23억 1800만원, 84㎡ 26억8400만원이다.

경기도 광명에서도 국민평형이 15억원 웃도는 분양가가 무리없이 소화됐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12R구역을 재개발하는 ‘철산역자이’는 완판에 성공했다. 전용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15억7600만원으로 광명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2층의 저층 분양가였다. 지난해 1월에 분양한 ‘광명자이 힐스테이트SK뷰’의 전용84㎡의 최고 분양가

수익성이 신통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올댓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고 있던 올댓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가 종료됐다. 4월에는 골프장 예약 서비스 및 티스캐너 이용 고객 대상 할인권을 제공하던 올댓골프 서비스가 폐지됐다. 올해 초를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제휴도 줄줄이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는 LF몰, 교보문고와의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6월에는 예스24, 쇼핑엔터, 우체국쇼핑, 신세계몰, G마켓, 알라딘, 홈플러스, 옥션, 롯데홈쇼핑, 11번가 등과의 제휴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올댓 플랫폼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제휴몰 등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정리해 단순화할 예정”이라며 “신한카드 이용고객 대상 쇼핑템 추천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처럼 타사 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 12억3500만원임을 감안하면 3억원이 넘게 올랐다.

철산역자이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총 204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다음주 청약을 진행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의 분양가는 더 올랐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16억4100만원이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11구역으로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9㎡ 31가구 ▲51㎡ 103가구 ▲59㎡ 494가구 ▲74㎡ 22가구 ▲84㎡ 2가구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1일 밝혔다. 다만 공항, 공단 지역, 시장, 기관 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수능시험 날, 은행 한시간 늦게 연다

은행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날 영업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 서 오전 10시~오후 5시로 변경한다고

‘수소항만-전기버스’로 친환경 속도 현대차그룹, 탄소중립 생태계 박차

평택항서 수소항만 MOU 체결
생산·충전망 등 인프라 구축
발리 전기버스 공급 첫 수주
글로벌 녹색 모빌리티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높인다.

국내에서는 평택시 등과 손잡고 탄소 중립형 수소항만 조성에 나서는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전기차 시스템 시범 운영과 친환경 교통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11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벌리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 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한다. 또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병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평택항 인근의 수소 생산 단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그린 암모니아 수입을 통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망 확장 및 육상전력장치(AMP) 등 수소 활용 어플리케이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에서 수소 사업을 총괄하며, 기아와 현대글로벌리스가

수소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등 수소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이를 통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녹색 해운항로’ 구축의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또 현대차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관련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리에서 전기차 시스템 시범 운영과 친환경 교통 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입찰을 통해 발리에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해 발리에서 최초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글로벌 TV패널가 11월 하락 전환

수요 둔화·재고 부담 누적

11월 들어 텔레비전(TV)용 글로벌 LCD패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상승 흐름이 가을 들어 둔화한 데 이어, 11월 들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32·43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각각 1달러, 50·55인치는 2달러, 65·75인치는 3달러 가량 하락했다. 단기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보합세를 거쳐 꺾인 것이다. 글로벌 주요 패널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약 80% 안팎으로, 4분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거론된다.

패널가 하락 배경으로는 연말 프로모션 재고 소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유럽 지역의 교체 주기 장기화와 중국의 교체 촉진 정책 효과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TV 제조사의 신규 주문이 줄자 패널 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정하며 단가 인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12월에는 65인치 이상 대형 위주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패널가 인하는 단순한 원가 절감 요인이라기보다 수요 위축이 전방(세트)과 후방(패널) 모두에 파급된 ‘동반 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TV 제조사의 공격적 물량 확보가 단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이 겹치며 생산 계획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패널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낮추더라도 가동률과 출하를 유지하려는 방어적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수요 둔화가 선행되고 단가 인하가 뒤따르는 전형적인 조정 사이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LG전자는 OLED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군과 자체 플랫폼(webOS)을 앞세워 수익성 중심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TV와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HD현대, 인도 합정시장 교두보 확보

코친조선소와 LPD 협력 체결

HD현대가 인도 코친조선소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인도 합정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인도 해군 LPD(상륙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 모함까지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춘 곳이다. 앞서 지난 7월 HD현대의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인도 해군이 추진 중인

상륙함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인도 특수선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륙함 설계·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인도 정부는 대규모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15년간의 군 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 ‘TPCR 2025’를 공개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구축함·상륙함 및 핵추진체계 등 주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는 12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번 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건조 역량과 HD현대미포의 해외 조선소 운영 경험이 결합돼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대한항공

화물 시스템 API 연동

실시간 데이터 교환 강화

대한항공은 항공 화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시스템에 고객사들의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한다.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 물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변화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솔루션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의 화물 시스템 연계 솔루션으로, 대한항공 화물시스템과 고객사 시스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항공사와 연계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스케줄 조회, 운임 확인, 화물 예약, 운송장 전송 등 제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솔루션 도입은 항공화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며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항공화물 업계에 혁신을 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B747-8F 항공기.



갤럭시 Z·폴드7을 구경하고 있는 방문객들 모습.

/삼성전자

삼성, 플래그십 전 라인업 ‘흥행’

S25 인기 이어 폴더블도 판매 호조
AI·디자인 혁신에 실적 상승세 지속

삼성전자가 올해 선보인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하반기에도 연속 흥행을 이어가며 연중 내내 실적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이 역대 폴더블폰 최다 사전 판매량인 104만대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까지도 꾸준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 Z 폴드7’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아울러 2억 화소 카메라, 원 UI8 기반의 한단계 더 진화한 인공지능(AI) 기능까지 갖춘 완성형 폴드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작을 훨씬 웃도는 판매 실적으로 하반기 플래그십 흥행을 견인 중이다.

‘갤럭시 Z 폴드7’은 접었을 때 8.9m의 두께와 215g의 무게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폼팩터를 구현했다. 또 펼치면 보이는 8.0형 메인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넓은 화면으로 더욱 편한 멀티태스킹과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을 장착해 전문가급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며 갤럭시 AI를 통한 ‘생성형 편집’ 기능으로 사진 속 원치 않는 대상을 편하게 지우고 자연스럽게 채워준다.

‘갤럭시 Z 플립7’도 콤팩트한 디자인에 확장된 커버 디스플레이로 인기를 끌며 출시 후 현재까지 전작 대비 동등 수준의 판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출시해 새로운 초슬림폰 시장을 연 ‘갤럭시 S25 엣지’ 역시 하드웨어 혁신과 강력한 성능, 내구성까지 갖춘 정교한 설계로 고객 수요를 공략하며 상·하반기 S25 시리즈 흥행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갤럭시 S25 엣지’는 하반기 타사 신제품 출시 후 초슬림폰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리딩하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전 판매에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많은 130만대를 기록한 데 이어 누적 판매량에서도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연이어 흥행 신기록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롯데, 충남 대산에 수소출하 거점 구축

롯데에어리퀴드 에너지하이

국내 최대 고압센터 가동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의 합작 법인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지하이 가 충남 대산에서 최첨단 고압 수소출하센터의 상업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충청남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위치한 이 수소출하센터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를 공급하며 특히 대형 수소 상용차(버스·트럭)의 연료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에 가동된 대산 고압 수소출하센터는 정부의 수소 출하센터 구축보조사업 지원과 롯데케미칼의 부생수소 공급

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국내 최대 규모인 450bar 압력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하루 기준으로 용용차 약 4200대와 수소버스 약 1100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또한 최첨단 고압 튜브 트레일러를 도입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트레일러는 기존 200bar 대비 3.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어 수송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김소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지하이 대표는 “대산 고압 수소출하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당사의 전략적 의지와 약속을 보여준다”며 “수소 모빌리티 보급의 가속화와 우리나라의 야심찬 수소 생태계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시멘트업계, 건설한파 직격탄… 내수 감소 등 업황회복 난항

내수 3650만t… 1990년대 수준
산업 특성상 수출 전환도 쉽지 않아
주택공급 등 정부정책 변화 분기점

시멘트 내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계속되는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올해 내수 물량이 90년 수준으로 회귀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게다가 내년 전망도 회색빛이다. 수출도 여의치 않아 돌파구도 제한적인 모습이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내수(출하)는 전년의 4371만t보다 16.5%(721만t↓)나 급감한 3650만t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들의 출하량을 참고해 예측한 수치다.

제품 특성상 수출이 쉽지 않은 시멘트는 내수가 절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 물량은 296만t으로 내수를 포

〈2025년 시멘트수요 추정(단위:만톤)〉

/한국시멘트협회

구분	1~3분기(실적)			4분기(추정)		
	2024	2025	증감률	2024	2025	증감률
내수	3,227	2,790	-13.6%	1,144	860	-24.8%
수출	196	335	70.9%	100	115	15%



강원도 소재 시멘트 공장 전경.

함한 총 출하(4667만t)의 6.3%에 그쳤다.

올해 내수 추정치 3650만t은 시멘트업계가 34년 전인 지난 1991년 당시 기록한 3711만t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멘트 내수는 97년 당시 6175만t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엔 4461만t으로 급락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엔 5671만t까지 회복했지만 8년만인 올해

내수 기준으로 2000만t 넘게 빠지며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내수 급감이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1990년대 초반은 업계의 생산능력이 4210만t이었고, 국가 정책상 수도권 외곽에 조성하는 신도시 건설사업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가 급증하는 시기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생산능력이 6100만t까지 늘어났지만 내수가 급락하면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 따라서 90년대와 현재의 내수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업계는 올해 내수 급감의 주요 원인을 주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급격히 감소(18.9%↓)한데다 동행지표인 건축착공과 건설기성마저 전년 동기(1~7월) 대비 각각 12.8%, 18.1%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가 주도의 SOC사업 예산도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4% 증가한 231조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내년의 공공부문 수주 확대가 전체 시장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지연, 건설공사비 부담 심화, 강도 높은 안전·노동 규제 등은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218조1000억원에서 올해엔 222조2000억원으로 다소 늘고, 내년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와 실제 착공에는 시차가 커 내년에 당장 시멘트 수요가 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멘트협회는 내년 내수 전망치를 올해(3650만t)보다 적은 3600만t으로 내다봤다. 건설착공 부진 지속→건설현장 가동 감소→건설업계 수익성 하락 등이 이어지며 만성적인 자금난이 이어지고 건설 공사비 증가 등 시멘트 수요 회복을 막는 걸림돌이 많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놔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7조5000억원의 SOC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움직임은 다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네트웍스, 로봇 등 AI 연계 사업 본궤도

3분기 매출 1조 9726억, 영업이익 223억
정보통신 분야 등 보유사업 안정적 성과

SK네트웍스가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입지를 강화한 3분기를 보냈다.

SK네트웍스는 연결기준 3분기 매출 1조 9726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세전이익 245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자회사 SK인텔릭스의 신제품 출시 비용 반영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22% 감소했으며, 차입금 및 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세전이익은 14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전년 3분기 SK렌터카 매각차익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3분기 보유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보통신사업은 네트워킹 관리 강화 및 단말기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위커킨은 호텔 객실과 식음료 매장, 대외 사업 고객 증가에 따라 매출이 한층 증가했다.

SK스피드메이트의 경우 정비·부품·ERS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엔코아 또한 솔루션·교육 사업 중심의 매출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은 지난 8월 SK네트웍스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들의 참여 속에 4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SK인텔릭스는 렌탈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원코크 플러스 열음물 정수기’가 꾸준한 인기를 끌었으며 10월에는 ‘초소형 라이트 작수 정수기’ 판매에 나선 등 지속적인 고객 마케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 방향성을 앞세워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한 세계 최초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이 발생해 이익 측면에서는 전년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4분기 및 향후 사업별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사업모델 혁신 속도를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SK인텔릭스는 지난달 30일 나무엑스를 그랜드 런칭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또한 최근 미디어텍 시장 유력 사업자인 ‘인크로스’ 지분 36%를 SK스퀘어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자사의 AI 역량과 결합해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본·자회사 전반에 걸친 AI 연계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AI 실증 사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연결 가치를 높이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진공 진주혁신도시 中 小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KOE N),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남혁신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LH와 남동발전은 기술마켓에서 직접 구매를 확대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특허·시험 분야에서 기술마켓 참여 업체를 돕는다.

중진공은 금융·수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산업현장 에너지 전환 지원대책 마련해야”

중기중앙회 2차 뿌리산업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평재 뿌리산업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뿌리산업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산업통상부 고승진 뿌리산업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채창욱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전기 등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협력

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추진 등 뿌리산업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으로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감축 과정에서 전기요금 제도 합리화와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전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 번이라도 피크가 높게 설정되면 1년 동안 과도하게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호 기자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외관.

SUV-스포츠세단 넘나드는 압도적 퍼포먼스

자동차 시승기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최고출력 530마력… 제로백 3.8초

서울 도심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와 국도를 질주하는 여정은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Grecalle Trofeo)’의 진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SUV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스포츠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튀어나가는 반응성은 단순히 운전자의 감각을 최고조로 일깨웠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마세라티의 순수 내연기관 기술이 응축된 3.0리터 V6 트윈터보 ‘네투노(Netuno)’ 엔진을 품었다.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63.2kg·m(620Nm)의 힘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SUV의 범주를 넘어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내부 모습.

/이승용 기자

스포츠 세단급 영역에 들어선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순간 매끈하게 밀려나는 차체와 묵직한 배기음이 뒤를 밀어붙인다. 스티어링 반응은 정교하고, 코너를 파고드는 차체 밸런스로 탁월하다. 무게 중심이 낮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노면을 단단히 붙잡으며 운전자의 의도에 즉각 반응한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민첩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콤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코르사 모드에서 오로지 달리기엔 집중한 모드로 기어 변속이 빨라지고 에어 서스펜션(완충장치)은 낮아지 등 각종 시스템이 주행에 최적화 상태로 전환된다. 운전의 재미를 극도로 뽑아내는 마세라티만의 특징이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잘 걸러내고 주행에서도 차분한 안정감을 유지한다. 다만 150km 구간을 주행한 결과 복합 연비는 약 3.8km/L를 기록하면서 효율성보다는 감성과 퍼포먼스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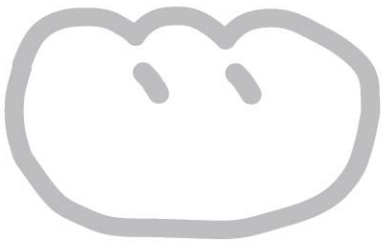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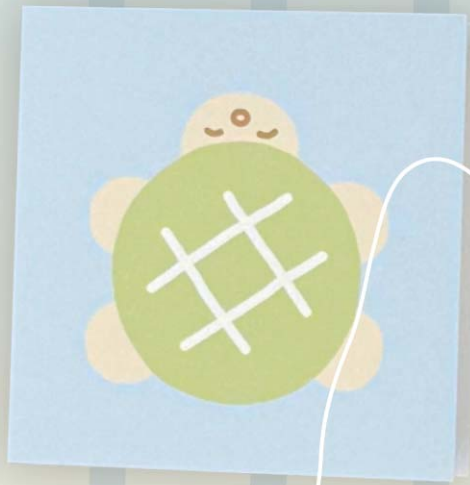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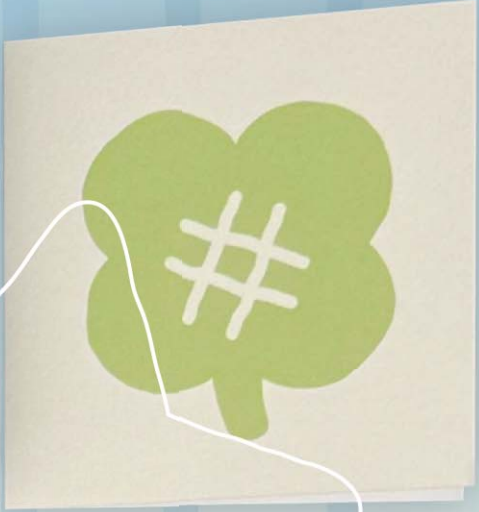
가격은 1억6870만원으로 비싸지만 그레칼레 트로페오가 제공하는 감성적 만족감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강력한 엔진과 감각적인 배기음, 세련됨과 패밀리카 등 SUV의 실용성과 스포츠카의 본능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 이 차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FOLDED

SET

CARD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지스타 2024현장 사진.

/최빛나 기자

국내 게임사 신작 공세 게임대상 ‘3파전’ 예고

‘지스타 2025’ D-1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출시를 앞둔 신작들을 대거 출품하며 게이머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개막 전 날 열리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는 대형 게임사 간 자존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는 올해로 21주년을 맞는다. 올해엔 44개국 1273개 기업이 참가해 총 3268개의 부스를 마련했으며, BTC(일반 전시관)와 B2B관, 컨퍼런스, e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출시될 주요 신작들의 흥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44개국, 1273개 기업 참가
엔씨·넷마블·크래프톤 신작 경쟁
블리자드 등 해외 게임사 참여 늘어
韓 게임대상에 8개 후보작 올라
넥슨·넷마블·네오위즈 유력후보

◆ 엔씨·넷마블·크래프톤 등 신작 경쟁 ‘후끈’

지스타 2025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엔씨소프트는 3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전시관을 선보인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MMORPG ‘아이온 2’와 오픈월드 액티컬 슈터 ‘신더시티’를 중심으로 ‘타입 테이커즈’, ‘리밋제로 브레이커스’, 미공개 신작 1종 등 총 5개 신작을 공개한다.

특히 ‘아이온 2’는 엔씨의 실적 반등을 책임질 기대작으로, 지난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 1만3000명이 몰리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게임대상 수상 이후 올해도 대규모 신작 라인업으로 맞선다. 총 112개 부스, 145개 시연대를 구성해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블베인’을 공개한다. 특히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은 글로벌 CBT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몬길: 스타 다이브’는 무안

경 3D 시연존을 운영해 입체적 체험을 제공한다.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가 제작한 ‘뱀월드 모바일’을 처음 공개한다. 글로벌 흥행작 ‘뱀월드’의 모바일 버전으로, 배틀그라운드 IP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네오위즈는 인디 신작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 웹젠은 전략 디펜스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츠’와 서브컬처 RPG ‘테르비스’, 위메이드커넥트는 턴제 전략 RPG ‘노아’를 선보인다.

올해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게임즈, 펄버비스 등이 불참하면서 주요 참가사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대신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가 늘며 지스타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됐다. 블리자드는 12년 만에 복귀해 ‘오버워치 2’ 체험존을 운영하며, 일본 세가·아틀라스와 만다이 남코, 체코의 위호스 스튜디오 등도 부스를 마련했다.

◆ 게임대상, 넥슨·넷마블·네오위즈 ‘3파전’

지스타 개막 전날인 12일에는 식전 행사로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열린다. 올해 본상 후보작으로는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 넥서스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 위메이드엑스알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8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유력 후보로 꼽히며,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까지 3파전 구도를 예상하고 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364만 건을 돌파하며 10대·20대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흥행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기반의 서사와 엔리얼 엔진5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 자동던제 시스템으로 전략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거뒀다. ‘P의 거짓: 서곡’은 탄탄한 세계관과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게임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스타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한국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며 “게임대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드러나고, 글로벌 전시를 통해 한국 게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료방송 3사, ‘불황형 흑자’에 신사업 모색

올해 3분기 영업익 개선에도 올상
非방송 분야로 사업 다각화 추진
가입자 감소 지속, 과도 규제 발목

국내 유료방송 3사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 중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넘어가고 광고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핵심인 방송·미디어 부문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사는 희망퇴직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AI·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료방송 3사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3분기 매출은 1조1430억원에 영업이익 8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6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3.3%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2469억원으로 3.9% 감소했다. LG헬로비전 역시 3분기 영업이익 90억원으로 172.8% 늘었으나, 매출은 2985억원으로 7.7% 줄었다. 특히 방송 부문 매출이 1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 부문은 495억원으로 늘며 실적을 방어했다.



KT 스카이라이프 사옥의 모습. 유료방송 업계가 낡은 관행과 제재에 시름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문제는 유료방송 3사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대부분 비용 효율화와 자회사 콘텐츠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 등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라는 데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위기감은 이미 현실화됐다. 미디어 소비 주도권이 유튜브와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6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만 9964명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에 3사는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 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LG헬

로비전도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 본사를 서울 상암동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동시에 비(非)방송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AI 스포츠 중계 솔루션 기업 ‘호각’에 약 68억원을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LG헬로비전은 계절가전 렌탈 및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와 달리 과도한 규제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형평성 확보와 함께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금 현실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 AX, 북미 車부품 공장 AX 물류 자동화 체계 구축

무인운반차·지게차로 자동 수행
물류 통합 제어 MCS·ACS 도입

SK AX는 북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 물류 자동화 구현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완성차 고객사 주문 다변화와 공정 간 물류량 증가로 복잡해진 물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산 전 공정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AX 물류 체계를 구축해 공장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SK AX는 반제품 이송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물류 공정을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인운반차(AMR)와 무인지게차(AFR)를 투입해 공장 전체에 ‘스스로 움직이는 물류 체계’를 실현했다.

로봇에는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SLAM) 기술이 적용돼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 경로를 찾아 이동할 수 있다. 벽처럼 고정된 구조물을 활용해서 공장 내부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동식 선반이나 화물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문제없이 동작한다. 이를 통해 여러 로봇이 서로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충돌 없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협업 환경이 마련됐다.

SK AX는 공장 전체 물류 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AI 기반 물류정보시스템(MCS)과 AMR제어시스템(ACS)도 함께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생산라인 가동 상태, 재고 위치, 로봇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 경로를 지능적으로 배분한다. 특정 공정에서 갑작스러운 생산량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AI가 즉시 물류 투입량과 순서를 조절해 불필요한 대기과 공정 지연을 없앤다.

연을 없앤다.

물류정보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특화된 기술이다. 일반 제조 공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과 다르게, 반제품 생산 공정부터 조립, 완제품 출하 등 실제 생산 라인에 맞춰 모델링한 전용 아키텍처를 활용했다.

SK AX는 이번 AX 물류 자동화가 공장 운영 전반에 걸쳐 비용 구조와 공급망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흐름이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연결되면서 부품 위치와 이동 경로, 출하 시점이 공장 내부와 본사, 고객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납기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수요 기반으로 조절 가능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 hik1@

U+tv, ‘익시’ 기반 음성검색 기능 강화

대화형 명령으로 검색 가능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 ‘U+tv’의 음성 검색 기능을 AI 시스템 ‘익시(ix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키워드 입력 대신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단순 키워드 검색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중에 한국 영화는?”, “액션 말고 로맨스”, “다른 재밌는 게 뭐야?”처럼 대화형 명령으로 검색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검색할 수 있다. AI는 사용자의 질문 맥락을 파악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업데이트로 ‘U+tv’는 한 번의 질문·응답에 그치던 기존 검색 방식을 넘어,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구조로 개선됐다. 이로써 사용자는 원하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시간TV나 VOD 재생 중에도 음성 명령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말로 하는 설정’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리모컨 클릭으로 자막 설정에 9번,



LG유플러스가 IPTV 서비스 ‘U+tv’의 음성 검색 기능을 AI 시스템 익시(IXI) 기반으로 업데이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U+tv’의 음성 검색 기능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배속 설정에 6번, 다음 회차 재생에 8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막 켜줘”, “2회 틀어줘”, “2배속으로 보여줘”처럼 말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넥스트레이드 2기 출범... ‘복수거래소’ 성장 속 제도개선 과제

김학수 대표이사 연임 확정

출범 8개월 만에 점유율 30% 돌파
12시간 거래·수수료 경쟁 확산세
15%를 규제에 성장세 제도 걸려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 손질 시급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2기 체제에 돌입했다. 김학수 대표가 지난 11월 1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하며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복수거래소(dual exchange) 체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며 거래 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경쟁, 주문 효율화 등 선진국형 거래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량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15%룰’)가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되며,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2기, 김학수 대표 리더십으로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

김학수 대표는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시장 제도 구상, 전산 인프라 구축, 인가 취득 등 ATS 출범의 전 과정을 주도지휘해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그를 “국내 복수거래소 제도 안착의 주역이자, 자본시장 구조를 새로 설계한 개척자”로 평가한다.

그는 주총에서 “투자자 친화적 거래문화로 더 성장하는 ‘넥스트레이드 2.0’을 만들겠다”며 “전산 인프라 경쟁력과 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래 안정성을 유지하며 미래 주식거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장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개설해 하루 12시간 거래를 구현했다.

또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연 2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보다 여유로운 투자문화와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현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3년 내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이미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은 3월 3.8%에서 6월 32.4%로 급증했다. 일평균 거래대



ChatGPT로 생성한 ‘넥스트레이드에서 증권 거래 중인 투자자들 모습’

금은 약 10조원으로, 한국거래소의 30%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급성장은 70년 가까이 단일 체제로 운영돼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냈고, 실제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를 의식해 수수료 인하와 12시간 거래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에 메기효과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나온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상장지수펀드(ETF),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으로 거래 대상을 넓히고, 데이터 비즈니스 유료화를 통해 글로벌 ATS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투자자 신뢰와 시스템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 인프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5%룰’이 막은 복수거래소 성장 동력... 자본시장 선진화 발목

하지만 급격한 성장세는 곧 제도적

한계와 맞닥뜨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15%룰’이다. 이 규제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2015~2016년 한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종목 축소를 반복해야 했다. 8월 20일 79개, 9월 22일 66개, 11월 5일 20개 종목이 잇따라 제외되며 거래 가능 종목은 795개에서 630개로 줄었다. 넥스트레이드가 발표한 ‘한도 관리를 위한 매매 체결 제외 종목(11월 5일 기준)’에는 카카오, 한국전력, 예코프로, 한미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단순한 ‘비중 관리’가 아니라 투자자 접근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프리마켓과 애프터

마켓은 넥스트레이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제한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해당 시간대에 리밸런싱이나 해외 뉴스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3개월간 150여 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실제 불편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15%룰’이 자본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약 9.1% 증가해 단순 분산이 아닌 파이 확대 효과가 있었다”며 “현행 상한규제가 이런 성과를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 구조의 불합리성도 문제다. 현재 점유율 산정 시 ‘시장 전체 거래량’이 아닌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분모로 삼고 있어, 실제보다 높은 비율로 계산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넥스트레이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분까지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글로벌 ATS처럼 자율적 시장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유입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15%룰’은 시장의 유동성과 상승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ATS 거래 비중이 전체의 30~40%에 달한다. 반면 국내는 제도상 상한으로 인해 시장 확대 속도가 제한돼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학개미, AI 급락에도 반도체 ‘매수 행진’

해외주식 Click

AI 거품론 속 엔비디아 집중 매수
빅테크 급락장, 레버리지 확대
美 증시 조정에 ‘불나방’ 투자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도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까지 높이면서 ‘불나방’ 면모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4~10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3억512만달러를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담은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1억9970만달러)이며, 기술주 고평가 우려에 조정받았던 팔란티어도 1억8336만달러 순매수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재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음날 주가가 7.9% 하락했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주가가 15.5% 빠졌다. 반대로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메타도 실적 발표 직후에만 11.3% 급락했다. 10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7% 하락했고,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지난주 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집중했다. 메타와 팔란티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각각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메타 볼 2배 ETF’(5736만달러)와 ‘디렉시온 데일리 팔란티어 볼 2배 ETF’(4775만달러)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리면서 집중 투자하는 흐름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AT WORK’, 법인 임직원 10만명 ↑

계약법인 400곳 돌파... 복지확산 가속

삼성증권의 ‘AT WORK’가 주식 기반 보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증권은 법인 맞춤형 복지·보상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주식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AT WORK’를 도입한 법인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며 400곳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4개로 가장 많고, 도매업·IT·바이오 등이 참여 증으로, 국내 대표 IT기업과 대기업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 AT WORK’는 스톡옵션, 제한조건부 주식(RSU), 임직원 주식매입 프로그램(ESPP)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또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는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모니터링, 해외주식 직접입고 기능 등 법인 담당자를 위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임직원 주식보상제도는 글로벌 선진기업에서는 이미 핵심 인재 확보와 유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신하은 기자

두산,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

GB300·GB200 서버 호조
증권가, 목표가 일제 상향 조정

두산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7.99% 상승한 101만40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08만2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날 두산은 올해 3분기 열결 기준 매

출액 4조4524억원, 영업이익 23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4.8%, 109.9%씩 증가한 수치다.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두산이 4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주가도 기준 100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GB300 랙서버의 양산 확대와 GB

200 서버의 주간 생산량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액 5499억원, 영업이익 1652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269%씩 성장한 수준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내년 연말 기준 서버 제조자개발생산(ODM)의 분기별 랙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도 이날 두산에 대한 목표주가를 116만~133만원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신한운용, 메가테크 ETF 2500억 돌파

리테일 자금 유입에 16배 성장
AI·전력인프라 테마 수익률 ↑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메가테크 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2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 및 은행 중심의 리테일 자금이 1150억 원 이상 유입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161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이 16배 증가했고, 한달가에만 1700억원 이상 늘었다.

수익률도 우수하다. 10월 기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각각 15.29%,

32.54%, 74.55%로, 같은 기간 코스피수익률(12.81%, 26.89%, 58.04%)을 크게 상회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 역시 120.52%로, 코스피(69.75%)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ETF 운용본부장은 “지나해부터 액티브 포트를 통해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온 인공지능(AI) 전력인프라 테마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멘텀이 부각되며 신규 편입한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결혼식장·요가 가격표시 의무화 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시행
세부내용·요금·계약해지 위약금 등
누리집·참가가격 중 한곳에 표시해야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

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경제지주가 이달 미국 내 한인마트 등지에서 진행 중인 국산 배 홍보행사.

/농협

농협, 美 워싱턴 등서 ‘한국산 배’ 알린다

한인마트 37곳서 집중홍보

농협경제지주가 세계 최대 농식품 소비자인 미국에서 ‘한국산 배의 수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달 6일(현지시간)부터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11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 주요 한인마트 37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행사를 여는 등 한국 배의 아삭한 식감과 청량한 단맛 소개에 나섰다.

또 현지 ‘커넥티드TV’ 광고를 송출해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산 배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무관 및 식약관

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미국 수출동향 파악에도 한창이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TV 또는 스트리밍기기를 통해 송출되는 디지털 광고를 가리킨다.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를 비롯해 한국배수출연합, 한국배연합회, 한국배수출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산 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K-푸드의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베트남 K-푸드 페어서 1370만弗 MOU

아세안 수출확대·소비문화 확산 도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상순 베트남 하노이·하이퐁에서 ‘2025 아세안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K-푸드의 아세안 지역 수출확대 및 현지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다.

11일 aT에 따르면 상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했다. 이어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한 결과, 소스류·신선과일류·냉동식품류 등을 중심으로 총 39건·137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퐁 빈흥 로얄아일랜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현지 진출한국식품기업 ▲한국농식품수입바

이어 ▲현지 외식업체 ▲한식당 등이 참여해 판매·홍보부스 24개를 운영했다.

aT는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포도·배·사과 등 신선 농산물부터 쌀·음료·인삼음료·두유 같은 음료류, 안동소주와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폭넓게 체험하도록 기획했다.

또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활용한 ‘K-푸드 오징어게임’, ‘김치만들기 체험’, ‘K-콘텐츠 체험공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을 찾은 9만 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B2B 행사도 이어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의 바이어 111개 사와 국내 수출업체 43개사가 참여해 열린 상담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채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근로복지공단, 회수절차 대폭 강화
회수율 제고·신속 채권회수 가능해져

임금채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채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채납사업주가 채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채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객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국제품질분임조대회서 ‘금상’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품질인의 축제인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에서 참가한 두 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11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 3일~6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15개국 911개 분임조, 약 20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중부발전을 비롯 12개 기관 29개 분임

조가 대표로 출전했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각각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을 통한 트러블 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 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력손실 저감 등의 혁신활동을 발표해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 11월 3일~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ICQCC에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너지팀 분임조), 서울발전본부(회전자분임조)가 Gold Award를 수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산업부, 바이오기업 수출·투자 정보제공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

산업통상부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정보제공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과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리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대 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지지부진’… 2029년 완공 불투명

공정률 39%, 개발 지연 장기화
레지던스 철회 사업 차질 불가피
연륙교 공사 더더 기반만 남아
“사업 중단 우려” 지역 불만 확산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못내고 있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조원대 자금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지지부진한 개발 속도로 일부 사업의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전남 동부권 사업 중단이 우려된다.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남도·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 측은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원에 일괄 매각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싱가포르 센토사를 모델삼아 1조원 이상을 투자, 경도 일원 2.15㎢ 부지에 2029년까지 콘도·오토캠핑장 이외 6성급 리조트 호텔·골프빌라·워터파크·마리나 등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1단계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수시 경도 전경.

하지만 경도 연륙교 건설 문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 등이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기초회의의 반발에 부딪치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선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전남도가 경도 연륙교 건설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아닌 펀딩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미래에셋 측이 개발사업의 한 축인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27층 높이 12개동 1121개실의 타워형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받

은지 3년여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김 지사가 지난 7월 초 순천 한 호텔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동부권 관광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진지 석달 만의 일이었다.

사업자 측은 장기 불황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 위축, 관광객 감소 등 사업성 결여를 포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인·허가청인 광양경자청은 숙의 끝에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취소를 승인했다.

광양경자청도 목표로 했던 2029년까지의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도 개발사업의

전체 진척도는 이날 기준 39.8%이다. 이마저도 호텔 건립을 위한 학교 이전, 기반 공사 등 기초적 토목공사 수준이다. 경도 연륙교 사업의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더딘 개발 속도와 레지던스 건립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여수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 민간기업에 매각한 전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3선 도전과 함께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동부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지사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레지던스 건립 포기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에 대한 마련을 요구했다”며 “관광사업의 특성상 일제(일괄)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매년 1~2회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며 “사업자 측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 관계는 “레지던스 이외 호텔 등 다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ACC

한강 노벨상 1주년 기념행사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 추진한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1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2025 제2차 정례협의회’를 열고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대구 달서구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계속 추진

대구 달서구는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층의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마련된 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훈련센터 개관

경북 예천군에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개관했다.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는 단일 종목으로는 축구에 이어 두번째 전용 훈련시설이다. 2020년 공모를 통해 예천군이 유치했다.

2023년 10월 착공 이후 2년여만에 완공됐다.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402㎡ 규모로 건립됐다.

숙소 76실과 강당, 세미나실, 경기분석실, 물리치료실 등 선수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국가 대표 및 청소년 선수, 지도자 양성과 육상 생활 체육 저변 확대 등 육상 발전의 ‘전천후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예천(경북)=손기섭 기자 gnews002@

영암군

친환경 수소여객선 건조 착수

전남 영암군은 ‘지역특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오는 2027년까지 40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을 건조한다.

대불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제조기업인 (주)빈센, (유)이원마린, (주)마스터볼트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이번 여객선 건조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산업 체질 개선, 생태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암(전남)=양수녕 기자

안동,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본격 추진

돌봄부터 공교육 등 전 생애 지원
공공의대 유치로 지역 균형 강화

안동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비롯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배움이 넘치는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돌봄, 공교육 강화, 진학지원, 평생학습 등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6월 대학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거점 돌봄플랫폼을 구축했다.

안동시장학회를 중심으로 한 장학사업도 활발히 이어졌다. 올해 289명

의 장학생과 6명의 우수교사에게 총 3억1,9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입학준비금과 교복비로 3,300여 명의 학생에게 8억2,700만 원이 지원됐다.

청소년을 위한 성장 기반도 강화됐다. ‘청소년박람회’, ‘유해환경 감시단’,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망과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주도형 활동과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청소년문화센터 성장지원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는 공공의과대학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립경북대학교와 협력해 교육·의료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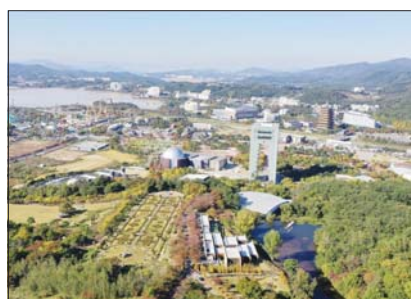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신라밀레니엄파크’ 특혜 논란 확산

경북문화관광공사, 용도변경 추진 쟁점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장기간 홍물로 방치됐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용도변경 추진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우양산업개발(경주 힐튼호텔 운영사)이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현금 10억 원 기부와 지역 특산물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여금 사용처가 보문관광단지 내부



경주 보문단지 전경.

로 한정돼, 자사가 추진 중인 6성급 호텔 주변 환경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지역사회 전체에 환원돼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실상 기업의 이익 회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청도군, 409억 투입해 복합주거단지 조성

지방소멸 대응 ‘청려도원’ 착공 돌입

청도군이 화양읍 범곡리 일원에서 ‘지역활력타운(청려도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청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지난 10일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해 경북도 관계자,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청도의 미래를 여는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지역활력타운(청려도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은 2023년 전국 7개 시·군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총사업비 409억 원(국비 1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 군비 109억 원, 민간자본(경북개발공사) 7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귀농인을 위한 주거 50호 ▲취·창업 지원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청년도약레지던스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을 포함한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포항, 임산물 유통혁신 거점 준공

유통 효율 높여 경상권 거점 기대

포항시가 흥해읍 대련리 산152 일원에서 임산물 유통 혁신의 거점이 될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지난 10일 준공됐다.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이 투입됐으며, 산림조합이 기부채납한 5,000㎡ 부지에 2024년 12월 착공해 약 1년 만에 연면적 964㎡ 규모의 복합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다.

이번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시설

로, 특히 전국 최초로 로봇 기반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임산물의 선별·살균·포장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집하장과 저온·냉동 저장고,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춰 청정 임산물의 신선도와 유통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임산물 가공센터를 통해 짧은 유통기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딸기 껌·송이 슬라이스·포장 산나물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뮤지컬 무대 연출 포토존 마련… IP 활용 먹거리 선보여

유통가, 뮤지컬 IP 협업 확대

신세계백 씨뮤 산타즈 선물공장 팝업
1000명 신청, SNS 인증샷 행렬
본점서 뮤지컬 원더랜드 티징 공개

이마트24 키키부츠 IP 상품 출시
레드벨벳 케이크 등 4종 선보여

유통업체가 뮤지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 뮤지컬이란 화려한 볼거리를 활용해 주 수요층인 2030세대를 붙잡고, 온라인에 빼앗긴 수요층을 오프라인으로 불러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은 CJ ENM과 손잡고 연말 캠페인 전면에 뮤지컬을 내세웠다. 이달 1일부터 강남점 오픈스테이지에서 열린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뮤지컬 '물랑루즈!', '키키부츠', '비틀쥬스' 속 캐릭터를 산타로 재해석해 무대를 연출한 포토존과 60여 종의 굿즈(MD)를 선보였다. 이번 팝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오픈스테이지에서 열리고 있는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스토어 현장. /손종욱 기자



신세계는 12월 신세계스퀘어에 뮤지컬 〈키키부츠〉, 〈비틀쥬스〉와 협업한 연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업은 하루 1000명 가까운 신청이 몰리고 SNS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는 등 뮤지컬 팬덤의 '연말 성지'로 떠올랐다.

나아가 신세계는본점 외벽의 신세계스퀘어 미디어 파사드에도 뮤지컬을 접목했다. 이달 3일 'Musical Wonderland' 티징을 공개하고 연말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12월 공개되는 본편 영상에선 키키부츠, 비틀쥬스의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김선진 부사

장은 "세계적인 뮤지컬의 생동감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하는 특별한 협업"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은 뮤지컬 IP를 상품으로 녹여냈다. 이마트24는 '팬텀', '맘마미아!'에 이어 키키부츠 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4종을 출시했다. 뮤지컬의 상징인 빨간 롱부츠를 활용한 '레드벨벳 케이크', 캐릭터 쥘스티커가 동봉된 '리얼초코 브라우니'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선보인 맘마미아! 협업 당시에는 뮤지컬 배경인 그리스를 테마로 '지중해식치킨

케밥', '그릭요거트빵' 등 7종을 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유통업체가 이처럼 뮤지컬 IP에 집중하는 이유는 핵심 타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 S)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2022년 기준) 뮤지컬 관객은 여성이 71.5%로 압도적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32.8%), 40대(28.4%), 20대(2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력을 갖춘 20~40대가 전체 관객의 84.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주력 소비층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유통 채널의 특성에 따라 뮤지컬 IP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자는 쇼핑만을 목적으로 유통업체를 찾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웬만한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백화점의 전략에 대해 "뮤지컬은 스토리가 있고 화려해 구경거리 느낌이 강하다"며 "백화점에서 재미거리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오프라인으로 갈 이유가 충분하기에 고객을 매장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집객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편의점의 접근은 다르다고 봤다. 이 교수는 "뮤지컬 협업 상품을 출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점에 갈 때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쇼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품 자체로 쇼핑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국내 부진' 영업이익 15.9% 감소

3분기 매출 7.4조, 전년비 0.3% ↑
해외는 성장, 내수부진·원가부담 발목
식품사업 유럽 매출 13%, 日 4% ↑

CJ제일제당이 내수 부진 여하로 3분기 연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11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대한통운 포함) 매출 7조 43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34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 감소했다. 대한통운을 제외한 기준으로는 매출이 전년보다 1.9% 줄어든 4조 5326억 원, 영업이익은 25.6% 감소한 2026억 원이다.

식품사업부문은 매출이 0.4% 늘어난 2조 9840억 원,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1685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략제품 확대로 해외 매출은 1조 4554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국내 매출은 1조

5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해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해외 지역별로는 유럽 매출이 13%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업망을 확대해 현재 27개국까지 진출국이 늘어난 결과다. 일본은 9월 신공장 가동 이후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매출이 4% 증가했다. 미주는 만두와 피자 판매가 늘며 3% 성장했고, 오세아니아 지역도 메인스트림 유통채널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5% 증가했다. 지난해 김치 생산에 이어 올해부터는 K-치킨을 현지 생산·판매하며 제품군을 넓혔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이 8.4% 감소한 9794억 원, 영업이익은 71.9% 급감한 220억 원을 기록했다. 트립토판·알지닌·핵산 등 고수익 제품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유럽 라이신 가격 약세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천연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

치(TasteNRich)'는 신규 고객 확보로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생산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

피드앤케어(Feed&Care)부문 매출은 5692억 원,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국의 사료 판매가 격 하락과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했다.

CJ제일제당은 4분기에도 만두·가공밥·K-스트리트푸드 등 글로벌전략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확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조미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테이스트엔리치'의 신규 수요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연중 최대규모 뷰티 특가전

내일부터 26일까지 최대 70% ↓

롯데마트가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H&B(헬스앤뷰티) 기획전 뷰티플렉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뷰티플렉스는 롯데마트가 연중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뷰티 특가전으로, 2주간 약 10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해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보습대전 테마로, 인기 스킨케어 제품을 역대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인다. VT R5 퍼밍 앰플 PDRN 기획, 아이소이 블레미쉬 잡티 세럼 기획, SNP 골드 콜라겐 3종 기획 세트, 글레드벨 콜라겐 리프팅 아이크림 등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니베아 바디로션, 카밀 바디로션, 바세린 바디로션 등 바디보습 제품도 할인 및 1+1 혜택으로 선보인다.

주말 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6



롯데마트가 뷰티 특가전 기획전인 뷰티플렉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일까지 메디힐, VT 등 23개 브랜드의 마스크팩 120종 1+1 프로모션과 기초스킨케어 149종 할인 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4950원 화장품 라인업도 강화한다. 행사 첫날인 13일, 더마팜, 제이준과 손잡고 기능성 스킨케어 9종을 신규 출시한다. 더마팜 멜라비타 스킨케어 4종은 미백 라인이며, 제이준 레티놀 스킨케어 5종은 탄력 관리에 특화된 상품이다.

/손종욱 기자

국순당, 양조전용쌀 '설갱미' 햅쌀 수매

누적 1만4000톤 수매 술 빚어

국순당이 국내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양조전용쌀인 설갱미 2025년 햅쌀 수매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설갱미는 일반 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수확한다.

설갱미는 미세한 구멍이 많아 양조 가공성이 뛰어나며 단백질 함량이 낮고 유리당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술 빚기에 적합하고 술맛이 부드럽고 깔끔하다.

설갱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1991년부터 육성을 시작해 2001년 등록한 품종이다. 원래 술을 빚는데 사용되는 쌀로 개발된 것은 아니

었으나, 향이 뛰어나고 미세한 구멍이 많아 쉽게 부수어지는 특성으로 술 제조용으로 연구게 됐다. 국순당은 농촌진흥청과 2002년부터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규격화를 위해 설갱미를 주조용 쌀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 2007년에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국순당은 2008년부터 설갱미를 원료로 술빚기를 본격화해 백세주를 설갱미로 빚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1만 4000톤을 수매해 술빚기에 사용했다.

이번 수매하는 설갱미는 국순당 본사와 양조장이 위치한 청정지역인 강원도 횡성지역의 농가와 약속재배를 통해 재배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2만원 무료배송' 이벤트

홈플러스 온라인이 매직배송과 매직나우 서비스의 무료배송기준을 4만원에서 최대 2만원 낮춘 이벤트를 진행하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료배송 쿠폰을 다운로드해 적용하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결제 금액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장바구니 쿠폰을 함께 제공해 고객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간은 채널별로 달리해 운영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1시간 내 외로 배송하는 매직나우는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당일 배송하는 매직배송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온라인 이마트' 정체성 강화

통합 매입·프로모션 공동 추진

SSG닷컴이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상품·가격·배송 등 온라인 장보기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통합 매입, 대형 프로모션 공동 추진, 배송 서비스 고도화 등 이마트와의 협업을 확대해 온라인 이마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쓱닷컴은 'SSG.COM 신선은 이마트로부터'를 슬로건으로 한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한다. 추억의 만화캐릭터 영심아·경태의 대사를 통해 이마트가 30년 이상 쌓아온 상품 매입, 운영 노하우를 쓱닷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에 구현했다는 점을 직관적이고 유쾌하게 표현했다. SSG닷컴은 이번 캠페인

을 통해 이마트몰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신뢰도가 이마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 대표 배송 서비스인 쓱주간배송은 전국 100여 개 이마트 점포 후방공간 PP(Picking&Packing)센터를 거점으로 매장의 신선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주문한 신선식품 선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신선보장제도 역시 품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 선보인 쿵커머스 서비스 바로픽 또한 이마트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신선 및 가공식품, 이마트 PL, 즉석조리식품까지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1시간 전후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

“美 관세리스크 해소… CMO 박차”

〈위탁생산〉

연내 ‘딜 클로징’ 마무리 전망
인수 후 7000억 이상 추가 투자
“美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셀트리온이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를 마무리 하며 미국 내 위탁생산(CMO)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미국 내 CMO 사업 확대에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zburg) 소재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달 10월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진행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자산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각국에서 판단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심사는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딜 클로징(Deal Closing)’은 차질 없이 마무리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딜 클로징과 동시에 업무 단절 없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영역별 실무 파견자들을 집중 투입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현지 직원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공장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 탈피,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미국 내 위탁생산(CMO) 사업 기회 확대라는 전략적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CMO 사업은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수요 확대 등 공급 변화를 기회 삼아 브랜치버그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미국 내 CMO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셀트리온의 오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경험과 자체 축적해온 신약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살려 향후 CMO 고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당장 셀트리온은 앞서 릴리와 협의한 CMO 계약에 따라 공장 인수 직후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금 조기 회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 예정인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은 약 4만5000평 부지의 대규모 캠퍼스로, 셀트리온은 인수 이후 약 1만 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에 최소 7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증설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모든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하며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의약품 생산·공급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마트, 3분기 영업이익 1514억… 35% ‘껍충’

〈전년동기 대비〉

3개 분기 실적 개선세 지속
누계 연결 영업이익 168% ↑

이마트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지속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순매출이 7조4008억원(전년 동기 대비 -1.4%)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97억원(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1514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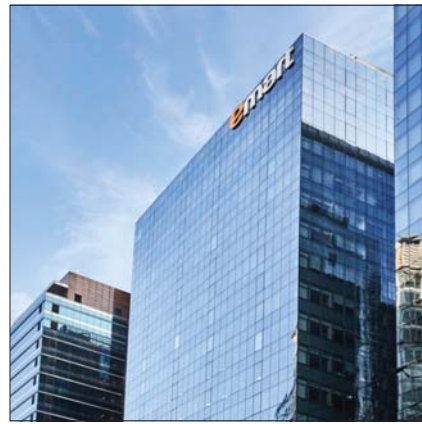
2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3개 분기 누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1242억원 대비 167.6% 늘어난 3324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총매출 4조5939억원(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 1135억원(전년 동기 대비 -7.6%)을 기록했다. 이는 추석 시점 차이 등의 일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과 가격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상시 최저가 정책과 고객 중심의 공간 리뉴얼 전략이 시너지를 내며 고객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또 해외 직소싱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며 상품 혁신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문을 연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해외 신상품 90여 종을 포함한 230여 종의 글로벌 상품을 선보였다.

이에 더해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공간 혁신 리뉴얼을 추진하며 고객 방문 확대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이후 9월 말까지 일산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66%, 고객 수가 110% 증가했으며, 동탄점과



이마트 본사 전경.

경산점 역시 각각 18%, 21% 매출 신장하며 리뉴얼 효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352억원 증가한 1조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1.6% 늘어난 395억원을 달성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올해 3개 분기 누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127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개점한 마곡점(2월)과 구월점(9월)이 모두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하며 신규 출점의 성공을 입증했다.

T스탠다드(T STANDARD)를 앞세운 전략이 핵심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T스탠다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자회사들도 연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중심의 영업호조와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조선호텔엔리조트는 투숙률 상승과 객단가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신세계 L&B도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에 힘을 보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삼성에피스홀딩스, ‘에피스넥스랩’ 설립

바이오 신성장 사업 본격 추진
홍성원 부사장, 대표이사 겸직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EPIS NexLab)’을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피스넥스랩은 에피스(EPIS)의 기업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Next)을 연구(Laboratory)하는 회사로서 전문성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상징하는 뜻을 담았다.

에피스넥스랩은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출범에 따른 신설 자회사로 아미노산 결합체(펩타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 플랫폼 사업’은 확장성이 높은 요소기술을 개발해 다수의 바이오의약품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것으로, 특정 약물이나 적용증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환 분야에 적용 가능해 높은 사업 확장성을 지닌다.

에피스넥스랩은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또는 기술 이전(라이선스 아웃) 등을 추진하

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에피스넥스랩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1본부장 홍성원 부사장(사진)이 겸직한다. 홍 부사장은 글로벌 제약사 출신의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가로, 삼성에피스홀딩스 기타 비상무이사로서 지주회사의 이사회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원 대표는 “에피스넥스랩은 지주회사 산하의 안정적 사업 구조 속에서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아르헨티나 의료진에 ‘나보타 시술법’ 전수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남미’ 진행

대웅제약은 지난 6일부터 2일간 아르헨티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남미(NMC LATAM)’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나보타 브랜드 입지 강화를 목표로 나보타의 임상적 차별성과 시술 노하우를 전파하고,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 시술법인 ‘나보리프트(NaboLift)’와 ‘나보글로우(NaboGlow)’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리프트는 나보타를 피부층과 근육층에 주사해 얼굴 윤곽 리프팅, 주름 개선 등 복합적인 미용 효과를 유도한다. 나보글로우의 경우 피부 퀄리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참석자들은 청담오아로피부과의 박지호·김창현 원장의 강연을 통해 나보타의 임상적 효과와 실제 시술 사례를 학습하고, 라이브 데모를 통해 생생한 시술 현장을 참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관 및 향남 나보타

공장 투어를 통해 대웅제약의 제조 품질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대 헬스케어 시장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 인구 수가 세계 2위일 정도로 미용·성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의료진 교육 강화와 MZ세대 소비자 마케팅을 양축으로 현지 시장의 다양성을 공략하고, 이를 통해 나보타가 아르헨티나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상 개선 효과”

한중일 생약학회 학술대회

KGC인삼소 홍삼오일 연구 결과 발표

홍삼오일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 증상을 50% 이상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생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홍삼오일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표 연사로 참석한 KGC인삼공사 김종한 R&D 본부 미래기술연구소 팀장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과, 홍삼오일을 섭취하면 전립선 비대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립선 비대증(중등도)을 가진 40세 이상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홍삼오일 섭취군으로 나누어 실험 대상자의 각 수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12주동안 매일 홍삼오일 500mg 캡슐 2개를 1일 1회(1000mg/

일) 섭취 후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 S)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IPSS 총점은 기준선과 비교해 대조군이 3.7% 증가한 반면, 홍삼오일 섭취군은 50.5% 개선됐고, 요절박(소변을 참기 힘든 느낌) 69.2%, 빈뇨 65.0%, 배뇨지연 61.5%, 잔뇨감 53.9%, 배뇨중단 44.4%, 야간뇨 41.8%, 약한배뇨 37.1%, 생활만족도 24.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립선에서 생산되며 전립선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활용되는 PSA를 측정된 결과, 대조군은 기준선 대비 3.8% 증가한 반면, 홍삼오일 섭취군은 3.0%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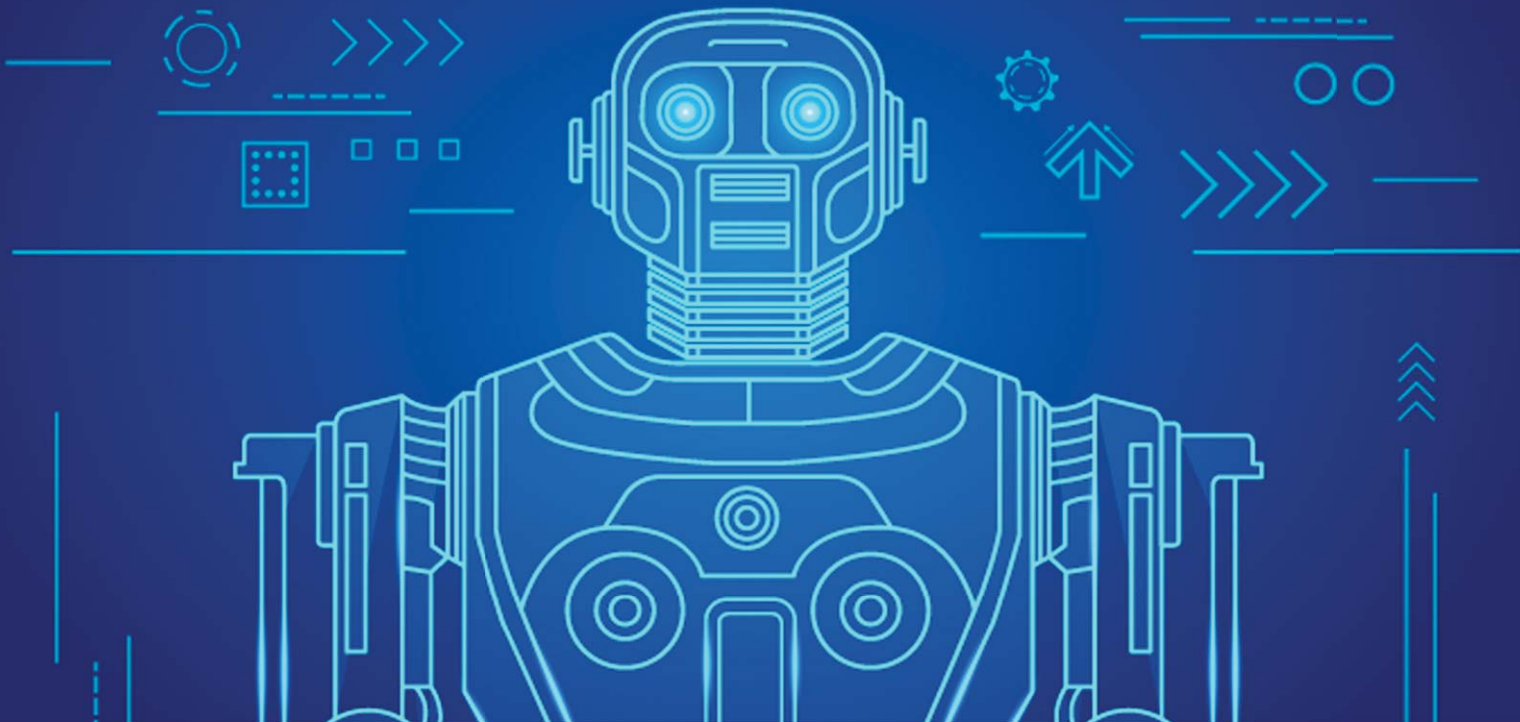
KGC 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은 ‘홍삼오일’이라는 차별화된 소재 연구 통해 과학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관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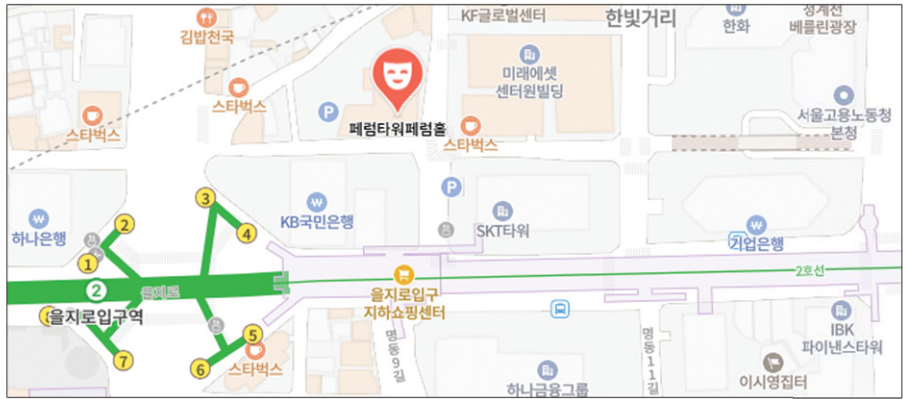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 탄소중립 녹색경영 표창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수도권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친환경산업 연구·개발과 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가치 확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메인비즈協-경기대·생산성본부, 산학연 협력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대 총장실에서 경기대와 생산성본부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경기대&생산성본부 협력센터(KKC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 경기대학교 이윤규 총장, 경기대학교 손울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LG생활건강, 국가유산보호 유공기업 선정

LG생활건강은 지난 7일 국가유산청 주최로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2025 국가유산 사회공헌 키퍼런스’에서 국가유산보호 기업 활동 유공 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5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국가유산 지키미’ 기업 활동을 해왔다. 사진은 최웅천 국가유산청장과 이홍주 LG생활건강 상무(오른쪽)가 영친왕비가 입었던 소례복 복제품을 보고 있는 모습.

/LG생활건강



롯데칠성음료, 취약계층 국내관광 여행지원

롯데칠성음료가 한국관광공사, 발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발상공동체)과 손잡고 사회 취약계층의 국내관광 여행지원을 위해 약 6500만원의 기부금을 발상공동체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롯데칠성음료 서인환 영업1본부장,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 발상공동체 하태하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예금보험공사-재외동포청, 국내거주동포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재외동포청과 국내거주동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등 국내거주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을 제공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삼성전자서비스, 韓서비스품질지수 ‘에어컨 AS’ 1위

‘에어컨 AS’ 부문, 올해 신설
주요항목서 업계 최고 점수
AI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

삼성전자서비스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높은 점을 인정받아 올해 신설된 ‘에어컨 AS’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각 기업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부문별 1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에어컨 AS 부문은 올해 신설되어 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7~9월 조사가 진행됐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원년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가전 AS 부문 21회로 역대 최다 1위, 컴퓨터 및 휴대전화 AS 부문 각각 24년, 22년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2025 KS-SQI 에어컨 AS 부문 1위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AS 품질 조사에서 ▲서비스전문성 ▲서비스 이용 편리성 ▲친절한 고객 응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 항목에서 업계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 에어컨의 AI 기술이 서비스에 접목되며 고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만의 차별

화된 기술인 ‘스마트싱스 인공지능 진단’을 활용한 ‘에어컨 사전 점검’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다.

고객은스마트폰으로 전달된 ‘에어컨 AI 진단 푸시 알림’을 통해 냉매량, 모터 동작 상태, 열교환기 온도 등을 손쉽게 종합 진단 받을 수 있다. 올해 여름 인공지능 진단 기능을 활용한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을 만큼 고객의 호응이 높다.

LG화학, 순환경제 아이디어 발굴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최연소 참가자 최우수상 수상

LG화학은 지난 8월 주최한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에서 초등학교생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5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최연소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관후 학생은 버려지는 에어컨 실외기 물을 모아 LG화학의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 내열·내충격 복합소재(PCR ABS-PC)로 만든 배관과 폐정수필터를 통해 생활용수 및 조경수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폐목재로 제작한 K-ESG 트로피 ▲친환경 소재로 만든



LG화학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관후 학생. /LG화학

응원봉 겹 음식물 봉투 ▲PCR PC 소재 수거함 ▲PCR PE·PP·PC 소재로 만든 친환경 볼라드(Bollard) ▲PCR 소재로 만든 홍수 대응 키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LG화학 CSSO 고윤주 전무는 “LG화학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생활 속 순환경제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하고 전 세대가 친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T-한국교원대, 교육현장 AX 박차

‘AI에듀테크센터’ 중심 추진

KT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함께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대가 운영 중인 ‘AI에듀테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교육 활동이 추진된다.

KT는 교원대와 협력해 AI,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특화형 AI 플랫폼과 솔루션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

프라 구축 자문, 데이터 플랫폼 방향성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측은 AI에듀테크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발굴하고, KT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재학생 역량 강화와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와 교원대는 AI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는 앞서 계명대학교·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디지털 연구·교육 플랫폼 ‘K-MIND’ 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IG넥스원,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

D&S 방산전시회 기간 중 방문

LIG넥스원은태국방산전시회 ‘디펜스&시큐리티(D&S) 2025’ 기간 중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를 방문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 참석 차 방콕을 찾은 구본상 LIG 회장 등 방문단은 10일(현지 시간) 참전 용사들을 만나 기념품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의자유와평화를 위해 싸운 공헌을 기렸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6326명을 파

가전제품 원격진단(HRM) 서비스를 통해 엔지니어 출장서비스 없이 제품을 점검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의 상태, 사용 이력 등을 AI로 분석 후 상담사가 최적의 조치 방법을 안내해 준다. 상담사가 직접 제품 설정을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AI 구독클럽’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AS 패스트트랙’, 출장서비스 중다른 제품을 추가로 무상 점검해 주는 ‘하나 더 서비스’, 제품의 이상 징후를 AI로 감지해 사전에 안내해 주는 ‘AI 사전케어 알림’ 등 차별화된 ‘블루패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줄여주고, AI가분석한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청호나이스, 진천군 김장나눔 행사 참여

행사서 1000만원 후원도

청호나이스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김장 나눔을 실천했다.

1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2025 진천군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진천군과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청호나이스를 비롯해 사회단체와 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장김치 3500kg은 지역내 취약계층 330여 가정과 경로당 20곳에 전달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간 온정 확산에 기여했다. 회사는 매년 다양



청호나이스 김대영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2025 진천군 사랑의 김장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한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 **외교부**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전북취재본부 △지시장 진재석 ◇전북취재본부 주재기자 △김윤상, △김명수 △김종일 △정훈

부음

-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허용석·허진석·허진선씨 모친상, 이호성(하나은행은행장)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11일 19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02-2227-7500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장애 극복 서사’가 은폐하는 것들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예술창작은 ‘극복의 산물’이 아니라 미학적 사유와 형식적 실험의 결과물이다. 장애 예술인의 작품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예술인을 둘러싼 담론은 ‘극복’과 ‘감동’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그들을 ‘극복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더불어 두 가지 본질적 층위를 체계적으로 은폐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작품의 예술성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형식적 완성도, 개념적 심도, 미학적 혁신성에 의해 판단된다. 작가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장애예술인의 작품’이라는 선형적 범주에 둔다. 작품보다 작가의 장애가 우선하는, 전도된 인식 체계이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사례다.

전도된 인식체계는 작품의 예술적 성취

나 미학적·사회적 맥락을 가려버린다.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라는 식의 낭만화된 내러티브를 재생산하고, 예술가를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편견을 강화한다. 더구나 범주적 오류는 장애예술을 사회·문화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영역으로 한정하는 게토화(ghettoization)를 낳는다.

장애예술인이 직면한 창작환경의 불평등은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결여된 공연장과 전시공간, 턱없이 부족한 창작지원금, 보조인력 및 활동지원의 제도적 미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의 취약함 등은 모두 시스템적 차원의 배제를 증명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장애예술 정책은 배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불평등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비장애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장애예술인의 다수 역시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그들에겐 장애 관련 의료비와 이동 보조비용 같은 지출이 중첩된다. 전동 휠체어 한 대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며(정부 지원 후에도 높은 자부담), 독과점 및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어려운 보조기기도 많다. 장애예술인 가족은 보조 인력 역

할을 하느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물론 정책적 변화의 조짐이 없지는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공간인 ‘모두예술극장’을 설립했고, 2024년에는 장애인 전용 미술 플랫폼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은 약 291억 원으로 집계되어, 과거 대비 건설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있다. 지원은 대체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작품의 가치가 주류 예술계에서 동등하게 평가받는 구조는 미흡하다. 장애예술을 ‘동정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예술적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질적 전환 또한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예술인과 관련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재편의 동시 추구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미술평론가

기술 자립이 곧 국력, K-방산의 다음 좌표



기 지 수 첩
이 승 용
(산업부)

한국 방위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양적 성장의 끝에서, 기술로 완성되는 ‘K-방산’의 다음 장을 여는 일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II 같은 대표 무기체계가 연이어 해외로 나가며 방산 4사의 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성과이자, 제조업 수출의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출의 호황이 곧 산업의 건강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방산은 완제품 중심의 ‘조립형 산업’에 머물러 있다. 무기는 나가지만 기술은 여전히 빌려 쓰는 구조다. K2 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독일 기술을 사용했고, 천궁 II 미사일은 국산 화물이 높지만 일부 핵심소자는 미국·유럽 산 부품을 쓴다. FA-50 전투기도 엔진은 미국 GE, 항전장비는 미국·이스라엘 기술에 기반한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술의 공백이 더 뚜렷해지는 이유다.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다. AI 전투체계, 무인 전력, 위성·데이터 기반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전쟁의 언어가 ‘철’에서 ‘코드’로 바뀌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하드웨어 납품에 강점을 지니지만, 지금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기업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한

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AI 모두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5~7%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 역시 2027년까지 국방 기술개발에 약 2조 원을 투입하며 AI 무기, 무인체계, 신소재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수출의 성과는 이미 입증됐다. 이제 남은 것은 기술력과 생태계다. 단일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기술이 산업 전체의 언어가 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미래전을 준비할 때 비로소 한국 방위산업은 진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철의 산업’에서 ‘코드의 산업’으로 나아가는 길, 그 선두에 K-방산이 설 수 있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기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심히 내세우면 적이 생긴다. 4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60년생 잠시 계획은 접는 것이 실패를 줄인다. 72년생 관음 기도를 해 보시라. 84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사랑과 측은지심이 있어야.



37년생 약진할 수 있는 운이다. 49년생 자살이 동하니 객지 밥을 먹게 된다. 61년생 상담이 잘되어 계약도 이루어진다. 73년생 병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85년생 종이 접이 싫으면 떠나야지 직장에 불만 일으키지 말아야.



38년생 옳은 일에는 주관을 확고히. 50년생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는 있게 마련. 62년생 능력이 펼쳐진다. 7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는데 삶은 왜 이리 힘든 것인지. 86년생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신용이 기초가 되니.



39년생 바깥수목 계획표를 다시 챙겨보라. 51년생 의외의 성과로 신난다. 63년생 두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이 현명할 듯. 75년생 시간을 갖고 생각하니 금전유통이 이루어진다. 87년생 귀인이 찾아와 연인과의 혼사가 결정.



40년생 조상님 산소를 돌보니 뜻깊은 하루. 52년생 집의 이동으로 다소 복잡하나 발전적. 64년생 친구들과 정치 종교 얘기 나누다 다투지 마라. 76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음. 88년생 오늘은 멀리 있는 길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41년생 첫인상을 좋게 가지려면 시간약속 잘 지켜라. 53년생 식구에게 집착보다는 사회성을 키우라. 65년생 잘못을 지적하다 다툼이 예상. 77년생 대출받아서 하는 투자는 다음 날로. 89년생 일의 갈증이 따르더라도 급하게 하지 않도록.



42년생 오후에 손재주이니 차량 벌금 날아온다. 54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66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챙겨라. 78년생 의외로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주위에 서조력을 구해보라. 90년생 애기하다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니.



43년생 실수를 떠벌리는 것보다 조용히. 55년생 사돈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된다. 67년생 해외파견 근무를 신청하면 될 것. 79년생 재물에 공망이 있으니 매매계약은 서두르지 말라. 91년생 삼각관계 이성 간의 만남에서 망신 수가 있다.



44년생 작은 일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56년생 노후대비는 지금 시기부터라. 68년생 기다리는 것도 미덕이며 나를 성장시킨다. 80년생 재산상속은 앞일이 어찌면 어려워질 징조. 92년생 재물에 귀인이 동행하니 뜻대로 된다.



45년생 겉보기에는 이득이 있을 것 같으나 감언이설. 57년생 신발장을 정리하여 머리를 맑게 하라. 69년생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용기가 필요. 81년생 영업장의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93년생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복잡한.



46년생 옛 지인으로부터 편지가. 58년생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70년생 부서를 옮기려다 구설수에 얽힌다. 82년생 호사다마라 돈은 나갔으나 집안에 벌일은 없다. 94년생 내가 잘했다기보다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니.



47년생 집안 안전점검을 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지 마라. 59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71년생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83년생 오늘의 실력은 평소 노력에서 온 것. 95년생 희망이 존재하니 실망하지 말아야.



김상회의四季

풍수 한담 ①

풍수에 관한 관념은 뿌리가 깊다. 선조들은 천지자연에 기(氣)가 있다고 믿었고, 기는 단순히 지구 내에서만 에너지가 아니라 해와 달을 포함한 먼 별과 그 별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로부터의 기운이라 여겼다. 기운의 근본 요소는 지수화풍 地水火風 4대이고, 특히 지구는 이 4대 요소의 영향이 극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기의 성품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그 효용이 지대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陰의 기운은 음택으로, 陽의 기운은 양택. 음택은 죽은 자를 위함이니 묘지의 선정에 쓰임이 우선이고 양택은 산 자에게 효용이 큰 것이라 작게는 주택에서 시작하여 회사건물, 도읍과 궁궐터를 정할 때 유효했다. 풍수 이론상 길지는 지하에 수맥이 흐르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며 별이 잘 드는 곳을 말하니 음택 양택 양자 모두에게 통하는 기본이다.

산자가 좋아하는 곳이면 망자에게도 좋은 길지다. 그러나 산 사람에게도 좋은 터가 부족하니 망자를 위해 도심 한가운데 좋은 터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배수임산의 별 잘 드는 적당한 높이의 구름이나 임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는 유교 문화임에도 풍수적 길지에 묘터를 잘 쓴 가문들의 자손들이 흥성하고 입신출세하는 후손들이 많은지라, 돈 있고 명망 있는 세력이 가문들일수록 길지의 묘터에 애가 났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내놓으라 하는 기업을 일군 집안이나 정치적 야망을 품은 이들이라면 우선하는 일이 선산을 잘 가꾸거나 좋은 음택지를 골라 조상 묘, 이전하는 일은 기본이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이 미신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얘기다. 수만 년을 두고 과학적, 경험적으로 공감되는 일이다. 너도나도 좋아하는 좋은 동네, 좋은 집터가 있는 것을 찾듯이. 음택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매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중·고·대 120

9	1					3	8	6
7					5			
	8						4	5
				6			7	
			8		4			
	5			9				
5	9						1	
			4					8
8	6	3				5	2	

		8	7	4		2		
					9			
							1	3
								4
								2
7						6		
1								
								3
	3			7				
6								
2	5	4						
				3		9	5	4

2	9	7	1	2	6	8	9	8
8	8	6	9	9	7	1	2	2
2	1	9	8	8	2	7	6	9
8	9	2	2	6	1	8	9	7
1	6	9	7	2	8	1	8	9
7	2	8	8	9	9	6	2	1
9	7	2	6	1	9	2	8	8
6	2	1	9	8	8	9	7	2
9	8	8	2	7	2	9	1	6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발표

‘AI 인재양성 허브’ 새단장… “양질의 일자리 80~90% 취업”

교육-취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 신규 운영
오세훈 시장 “현장형 AI 인재 양성”

서울 전 자치구에 1개씩, 총 25개 캠퍼스를 완성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AI 인재양성 허브’로 새롭게 거듭난다.

미래 산업 흐름을 반영한 단계별 AI 직무 교육과 더불어 기업·공공기관 연계 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현장 대응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 청년들이 실제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취업사관학교 2.0-1089(십중팔구) 프로젝트’를 11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IT를 넘어 CS·생산·마케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량은 물론 실무경험을 갖춘 현장형 AI인재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일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양성해 ‘십중팔구’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에 80~90%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인원도 올해 3300명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빅테크 전담 캠퍼스 10개 조성

우선, AI 산업 현장수요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도 운영해 한층 더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는 올해 첫 도입해 ▲마포(Microsoft) ▲중구(Salesforce) ▲종로(Intel)에서 운영중이며 2026년 5개, 2030년에는 총 10개까지 확대한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이 중급이상 심화 교육 과정을 전담 운영하는 방식으로 SK, KT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형 현장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해 교육의 질은 물론 채용까지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서울의 신성장 혁신축을 중심으로

로 한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 5곳도 신규로 운영해 지역별 거점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된 AI 인재를 양성한다.

성북(바이오), 영등포(핀테크), 강남(로봇), 강서(창조), 동대문(뷰티패션)에서 운영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영등포캠퍼스에서 블록체인기반 금융서비스(핀테크), 강남 캠퍼스에서 로봇제어 융합 SW개발(로봇) 등의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AI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연 연계 고급인재 양성트랙’도 신설한다. 매년 20명을 선발해 연구, 학위 등 과정까지 지원한다.

◆ 인턴십·자격증 취득 지원

기업·공공 맞춤형 인턴십 등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경험과 역량을 갖춘 AI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먼저, AI관련협회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해 서울시 매력일자리와 연계한 ‘기업연계 인턴십’을 실시하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펼친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AI 분야’를 추가하는 등 서울시의 기존 일자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연계 인턴십’은 교통, 인구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공공분야 AI 인재 수요를 적극 발굴해 매칭한다. 서울시 매력일자리 직무분야(공공형)에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년 10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연간 3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평균 494㎡규모의 소형 캠퍼스 16개소를 2030년까지 1000㎡ 이상의 중·대형 캠퍼스로 대대적으로 확장한다. 또 대학과 협력해 ‘찾아가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도입하고, 대학이 보유한 첨단 장비와 우수 인력 등을 활용한 전문교육도 본격 실시한다. 다양한 교육커리큘럼과 방식으로 2030년에는 연간 AI 인재 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국대, 15일 ‘KU논술우수자’ 논술고사

인문·통합계열 9시 20분, 자연계열 14시
논술 100% 반영… 수능최저학력 적용

전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 전형 논술고사를 15일 진행한다

고사 시간은 모집 계열 및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다. 인문 계열 및 통합 계열은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까지다. 자연 계열은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응시한다. 해당 고사장과 입실 완료 시간은 고사 3~4일 전부터 전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U논술우수자’는 논술 100%로 진

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인문·자연 계열 및 KU자유전공학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 수, 영, 사/과탐(1과목) 중 2개 등급 합 5이며, 수의예과는 3개 합 4로 작년과 동일하다. 모든 계열 한국사는 5등급을 맞춰야 한다.

출제 유형은 계열에 따라 다르다.

인문 계열은 도표 자료가 포함된 국어, 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며, 이해력과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

통합 계열은 국어, 통합사회 교과 분

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리, 자연계 관련 지문 또한 제시해 이를 근거로 문제를 출제한다. 해당 모집 단위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학과, 응용통계학과, 사회과학대학융합전공학부,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부동산학과, KU자유전공학부다.

자연 계열은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총 4문항이 출제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리,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출제한다.

/이현진 기자 lhj@

인천시, 기후부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재지정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사진)는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행·재정적 기반, 지원 협력체계, 운영 성과, 협력 환류, 계획의 적정성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시, 교육청,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아울러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육청은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행정·교육·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도시 모델을 완성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정부,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확보 팔 걷어

교육부 등 4개 부처 종합대책 발표
예방교육 강화 등 3대 전략 24개 과제

정부가 최근 잇따른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응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대통령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됐다. ▲엄정한 법집행 ▲예방교육 강화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 아래 24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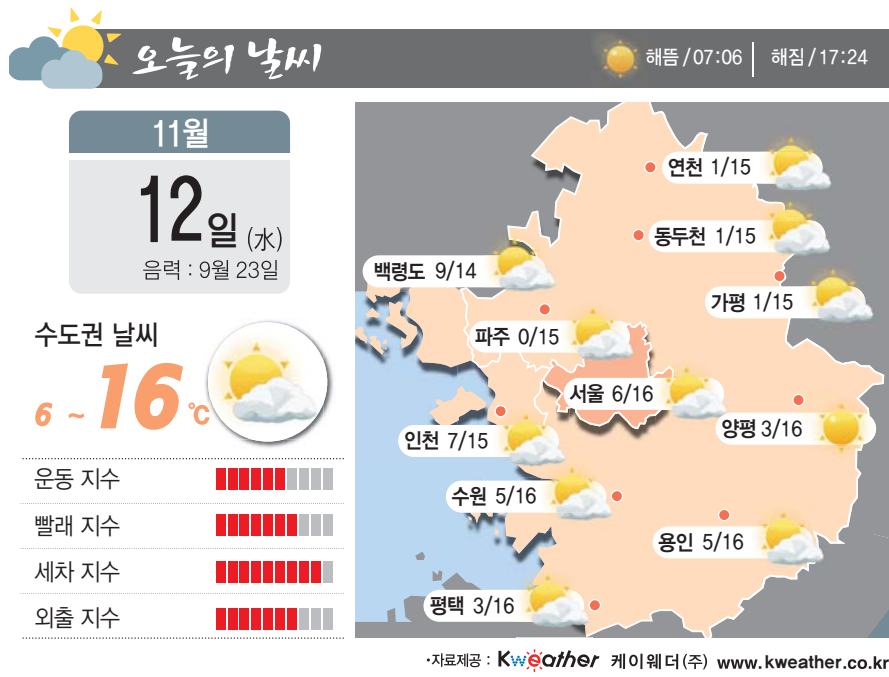
먼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으로 분류해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며, 중대한 사건은 신상공

개와 범정형 상향 등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또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역할극 등 체험형으로 강화하고, 국민 대상 범죄 경각심 제고 캠페인과 실종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운영 중인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확대 운영하고, ‘위킹스쿨버스’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장기 구금’ 카다피 아들, 보석금 13억 원에 석방
▲ 中, 다시 “불장난하다 타 죽을 것”… 다카이치
日총리 ‘대만 유사’에 반발



▲ “日정부, 대일투자 사전 심사 강화…기술·정보
유출 방지”
▲ 인기 없는 獨총리… ‘재출마 지지’ 고작 18%
“고령 우려도”

▲ 주한 프랑스대사 “마크롱 내년 방한…정상
호 방문 조율 중”
▲ 美상원, ‘셋다운 종료’ 임시에산안 통과… 12일
하원 표결



유통가
뮤지컬 IP 활용
협업 확대
L1



Life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
L2



“견과류 ‘하루 25g’ 표준 세워… 40년 노하우로 글로벌 공략”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권영기 더채움 대표

‘K-견과류’로 세계적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펼치고 있는 기업과 기업인이 있다. 40년 넘게 견과류 분야에서 한우물을 파며 국민들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올곧은 신념으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견과류는 45~95% 정도가 지방으로 이뤄져 있다. 기름에 튀기면 안되는 이유다. 대신 볶아야 한다. 그런데 빨리 만들기 위해 200도가 넘어서도 안된다. 타기 때문이다. 타면 쓴맛이 강하게 난다. 우리나라는 다른 음식을 통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문화여서 견과류 제조시 소금을 많이 써도 안된다.”

경기 고양에 있는 더채움 본사에서 만난 권영기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84년부터 다니던 견과류 회사를 97년 IMF사태때 나온 후 이듬해 창업했다. 더채움의 전신으로 견과류를 유통하던 부림농수산이었다. IMF가 기회가 된 셈이다. 그러다 제대로 된 견과류를 만들어보겠다는 신념으로 2000년부터 제조까지 뛰어 들었다.

150도 이하의 온도로 90~100분간 저온 로스팅을 하고 소금을 적게 쓰면서 산패(변질)를 막기 위해 모든 공정을 항온·항습으로 관리하는 견과류 제조공정은 권 대표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만든 노하우다.

수많은 관련 연구논문과 실험을 통해 견과류를 하루에 25그램(g)만 섭취해도 건강 관리에 충분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하루한줌 E25g’ 제품이 나온 배경이다. 더채움이 관련 제품을 내놓은 이후 시장에선 ‘하루’와 ‘25g’이 견과류 시장의 표준이 되다시피했다. 현재 더채움의 생산라인은 25g 제품을 한 달에 100만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판로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공장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땅도 충분히 확보했다.

“견과류도 과학이다.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로스팅을 하면 30분 정도면 충분하지만 150도 이하에선 시간이 두배가 더 걸린다. 비용은 3배가 더 든다. 이렇게 만든 견과류는 고소함은 다소 덜하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건강에도 좋다. 견과류는 하루 25그램만 먹으면 충분하다. 한꺼번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더채움 공장에서 권영기 대표가 제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IMF사태 때 회사 나와 ‘더채움’ 창업
40년 넘게 견과류 분야서 ‘한우물’

150도 이하로 100분간 저온 로스팅
시행착오 끝에 항온·항습 공정 구축
고품질 제품으로 건강한 먹거리 고집

식품기업, 장수해야 대기업으로 성장
축적된 기술·지식으로 세계무대 도전

많이 구매해 오래보관하고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보관 온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제조공정이 이렇다보니 더채움이 만든 견과류 제품은 타사보다 20% 가량 더 비싸다. 품질 나쁜 견과류들과 경쟁하지 말자고 만든 제품이다.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제품 원재료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 피칸 등은 100% 수입산을 쓸 수 밖에 없어 원가에도 민감하다.

건강한 먹거리를 고집하며 억척스럽게 만들다보니 100년이 넘는 미국의 세계적인 견과류 회사인 파라마운트팜즈가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한국 대기업이 아닌 우리 회사를 찾아와 OEM 공급을 하자고 했다. 미국 기업보다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이후엔 선키스트, 삼양사, 쿠팡, CU, 코스트코 등에도 제품을 납품하는 등 판로가 넓어졌다.”

이들 판매처를 통해 일부 제품은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목이 마른다.

권 대표는 “식품기업은 장수해야 한다. 제조 기술, 지식이 오랜기간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가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다행히 중국의 식품들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외수출을 위해 캐릭터도 별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이끄는 더채움은 견과류 회사로는 처음으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 사명을 갖고 먹거리를 제조하다보니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등 상복도 터졌다.

더채움의 25g 견과가 세계인들의 식탁에 두루 오를 날도 머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더채움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견과류를 선별하고 있다.



더채움 생산라인에서 견과류를 볶는 저온로스팅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더채움 견과류 선물세트.

/더채움

메트로 한줄뉴스



▲‘꼬마’ 아틀레티코, 미아폴로 품으로…추가 자본 투입·인프라 개발 병행
▲메시, 바르사 캄노우 깜짝 방문…“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사진 뉴시스

▲PSG에서만 100경기 뒀던 이강인 “팀의 승리를 계속 돕겠다”
▲애슬레틱스 커츠, 만장일치로 AL 신인왕 등극…애들랜타 볼드윈도 수상

▲MLB, 승부 조작에 ‘발각’…“투구별 베팅 한도 제한 둔다”
▲‘WS 4회 우승 감독’ 보치, MLB 샌프란시스코 특별고문으로 복귀